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教育學碩士學位論文

일제하 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의 赴戰江·長津江 개발과 노동자 통제

2017년 2월

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教育科 歷史專攻

朴 相 必

일제하 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의 赴戰江·長津江 개발과 노동자 통제

指導敎授 金 泰 雄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6년 10월

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敎育科 歷史專攻
朴 相 必

朴相必의 敎育學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6년 12월

위 원 장 _____

부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國 文 抄 錄

이 논문은 일제하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의 부전강과 장진강 유역 개발 당시 노동 현실과 노동자 통제에 대한 것이다. 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는 1908년 소기(曾木) 전기주식회사와 일본 카바이드 상사의 합병으로 탄생하였다. 일본질소는 저렴한 화학비료를 대량으로 생산해 내기 위해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였다. 하지만 이미 일본에서는 5대 전력회사가 전원 지대를 선점하고 있었기에, 일본질소는 식민지 조선으로 눈을 돌렸다. 때마침 조선에서는 유역 변경식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건설되었으며, 수력 발전력 조사에도 착수하고 있었다. 이에 일본질소는 赴戰江의 유역 변경식 발전소 건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조선총독부에 개발권을 신청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미 사업권을 신청하였던 미쓰비시에게 장진강 개발권을, 일본질소에게는 부전강 개발권을 허가하였다.

일본질소가 저렴한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어야 했다. 그래서 일본질소는 부전강 발전소 건설 당시, 군과 경찰의 힘을 빌어 주민들이 토지를 팔도록 강요하였다. 이렇게 얻은 토지 위에 건설된 부전강 발전소는 1㎾당 건설비가 일본에 비해 매우 낮았다. 그리고 1931년 부임한 우가키 가즈시케(宇垣一成) 총독은 朝鮮電氣事業令을 공포하고 본격적으로 전력을 통제하였다. 이어 長津江 개발권을 미쓰비시(三菱)로부터 회수하여, 발전량의 1/2을 공공용으로 내놓는다는 조건 하에 일본질소에게 넘겼다. 조선총독부는 토지 買收에 끝까지 반대하는 지주들의 토지에 토지 수용령을 적용하였고, 일본질소는 이를 헐값에 매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건설된 장진강 발전소 역시 1㎾당 건설비가 매우 낮았다.

부전강 개발 공사에는 매일 8,000~15,000여 명의 노동자가 종사하였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공업의 발전이 전개되지 않은 조선에서 노동자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당시 사회문제화하고 있었던 일본으로 도항하려는 노동자를 부산에서 저지하여 발전소 공사장으로 보냈다. 응모자가 별로 없자 조선총독부는 여비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언론을 활용하여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

사를 담당한 청부업자들은 저렴한 임금과 조직성 때문에 중국인 노동자들을 선호하였으며 이들을 상당수 고용하였다. 우가키 총독 부임 이후 조선인 노동자의 취업 斡旋 정책은 더욱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직업 소개소, 행정력과 언론 기관 등을 총동원하여 노동자 알선에 나섰다. 결국 조선총독부는 1934년 2월 「南朝鮮勞動者團體移民案」을 마련하여 노동자를 모집하였다. 이 안은 20명을 단위로 집단 이주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탈주를 막고 단결력을 강화하여 정주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임금, 숙사, 여비 등에서 각종 혜택을 주었다. 하지만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현실과 임금 때문에 돌아가 버렸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노동자들을 알선할 때 근무 조건과 임금 등에 대해서 회사나 청부업자들과 협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부전강 및 장진강 발전소는 유역 변경식으로 건설되었고 매우 험난한 공사였다. 안전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도 끊이질 않았다. 특히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곳은 斜坑과 竪坑이었다. 유역 변경식 발전소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공사 중의 하나는 水路 공사이다. 그런데 부전강 및 장진강 발전소 건설에서 수로는 23~27㎞에 달할 정도로 매우 길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로 공사는 마츠모토구미(宋本組), 나가토구미(長門組), 니시마츠구미(西松組), 하자마구미(間組) 등의 청부업자가 나누어 시공을 하였다. 이들은 수로 공사 현장으로 사람이나 자재를 반출입하기 위해 굴을 뚫었는데, 가로로 뚫은 것을 橫坑, 비스듬하게 뚫은 것을 斜坑, 수직으로 뚫은 것을 竪坑이라 불렀다. 斜坑과 竪坑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이유는 37~162m에 달하는 좁은 굴을 따라 수로로 이동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수로, 사갱, 수갱, 횡갱 등 굴착 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곳 공사장에서는 다이너마이트가 많이 사용되었고, 그에 따라 다이너마이트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회사나 청부업자 측에서는 이를 대부분 노동자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들은 노동자의 실수에서 발생했다기 보다는 회사측의 관리 소홀이나 안전 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사고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되긴 했으나, 실제로 적용된 적은 거의 없었다.

부전강 및 장진강 발전소 건설 현장에는 일일 수천여 명의 노동자가 종사하였기 때문에, 회사나 청부업자들은 중간 관리자들을 두어 노동자

들을 감시하고 관리하였다. 이러한 중간 관리자들은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감독하였으며, 심지어는 노동자들을 구타하여 사망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기 위해 노동자들의 생계비가 저렴함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실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조사한 다음, 모집한 노동자들 임금의 하한선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노동자들은 이 임금으로 최소한의 생계 마저도 보장받지 못했다. 게다가 노동자들은 임금을 현금이 아니라 전표로 지급받았다. 당장 현금이 급했던 노동자들은 전표를 할인받아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독신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함바(飯場)'에서 생활했으며, 크기나 위생 등이 매우 열악하였다.

발전소 건설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은 자부심을 갖고 일에 임했으며, 열악한 노동 조건 하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어진 일을 완수하려 노력하였다. 부당한 노동조건이나 임금 등에 대해서는 도망, 항의, 청원서 제출 등 소극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파업이라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항하기도 하였다. 조선인 노동자들과 중국인 노동자들은 서로 대립하기도 하였지만, 동조 파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본인 노동자들도 조선인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발전소 건설 노동자들은 회사 및 청부업자의 관리 및 통제에 대항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갔다.

주요어 : 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 赴戰江, 長津江, 유역 변경식 발전소, 노동자 동원, 노동자 통제

학 번 : 2012-21391

次　　例

國文抄錄

1. 序 言 ····· 1

2. 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의 조선 진출과 赴戰江・長津江 발전소 건설 ····· 5

3. 조선총독부의 노동력 斡旋과 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의 노동자 고용 ····· 22

4. 赴戰江・長津江 발전소 건설 현장의 노동 여건과 노동자 통제 ····· 34

1) 발전소 건설 현장의 실상 ····· 34
2) 청부업자의 노동자 통제 및 노동자들의 대응 ····· 45

5. 結 語 ····· 60

참고문헌 ····· 71
Abstract ····· 77

表 次 例

<표 1> 일본 국내 硫安의 공급량 ····· 8
<표 2> 부전강 및 장진강 발전소 kW당 건설비 ····· 19
<표 3> 1926~1943년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의 사업 현황 ····· 20
<표 4> 1929년 함경남도의 노동자 수 ····· 25
<표 5> 중국인 노동자 유입 추이(1919~1928) ····· 26
<표 6> 북한 지역 주요 공사의 노동자 수 ····· 29
<표 7> 장진강 발전소 건설 노동자 수(1934년 7월) ····· 31
<표 8> 장진강 발전소 건설 노동자 수(1934년 10월 이후) ····· 31
<표 9> 부전강 발전소 건설 현황 ····· 37
<표 10> 장진강 발전소 건설 현황 ····· 37
<표 11> 부전강 개발 공사 사고 현황 ····· 38
<표 12> 장진강 개발 공사 사고 현황① ····· 38
<표 13> 장진강 개발 공사 사고 현황② ····· 41
<표 14> 부전강 坑別 노동자 수 ····· 47
<표 15> 장진강 발전소 공사장 인부들의 임금 ····· 52
<표 16> 장진江 개발 공사 사고 현황③ ····· 56
<첨 부> ····· 63

그 림 次 例

<그림 1> 부전강 발전소 단면도 ····· 34
<그림 2> 竪坑의 단면도 ····· 40

1. 序 言

일제는 자국의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조선을 상품 시장, 원료 공급지, 자본투하지로 변용해 나갔다. 따라서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중점은 농업에 있었다. 반면, 공업 분야에 대해서는 식민 통치에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육성하였다. 즉 1920년대 일제가 설정한 경제 정책의 근간은 산미증식계획으로 일본 내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소공업을 육성하여 일본 자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1920년대 전 세계를 강타한 세계 대공황의 여파는 일본 자본주의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제는 국가가 직접 경제 운영 전반에 간여하기 시작하였다. 1931년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우가키 가즈시케(宇垣一成) 총독은 日・鮮・滿 경제 블록을 구상하며, 농공병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만주와 인접한 북한 지역을 공업지대로 육성하려 하였다. 그리고 공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전력 생산을 위해, 이미 북한 지역에 진출해 있던 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이하 일본질소)의 전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1930년대 들어 조선에서는 공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초반은 전시 통제 경제기로 이어지는 준전시체제로, 노동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통제가 본격화된 때이기도 하다. 1920년대 후반 조선에 진출한 일본질소는 토지 매수나 노동력 동원 등에서 조선총독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부전강을 시작으로 장진강, 허천강, 압록강을 차례차례로 개발하여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본질소는 가혹한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를 수탈하였으며,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였다.

따라서 일제하 조선에서 공장이나 발전소 건설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의 구축 등에서 실제 노동 현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회사 또는 공사를 담당한 청부업자가 실제 현장에서 노동력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였는가를 살펴보면서 식민지 공업의 성격을 드러낼 단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질소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질소 성장의 발판이 된 부전강 및 장진강 발전소 건설 현장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일제의 노동력 동원 정책의 구체적인 모습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제 시기 공업의 전반적인 성격을 구명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일본질소에 대한 선행연구는 초기에는 주로 재벌로서의 일본질소의 성장, 화학공업 발전에서 일본질소의 역할 등을 다룬 것이 많았다. 그리고 일본질소의 식민지 조선으로의 진출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1] 이러한 연구들은 거의 일본에서 진행된 것으로, 대체로 일본질소의 성장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일본질소가 조선으로 진출한 배경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동원에 관한 연구와 일제하 독점적 전기 사업 체제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일제하 노동정책의 전반적인 흐름과 일제의 전력 산업 정책 및 전력 통제 정책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흥남의 도시 형성과 이주자 사회 모습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3] 이들 연구는 일본질소가 조선에 진출하면서 흥남이라는

---

1) 松岡信夫,「朝鮮窒素肥料會社の体質と行動」,『自主講座』 第17号, 1972, 小林英夫,「1930年代日本窒素株式會社の朝鮮への進出について」, 『植民地經濟史の諸問題』, 1973, 糟谷憲一,「戰時經濟と朝鮮における日窒財閥の展開」,『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12號, 1975, 松岡信夫,「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研究序說」,『日本帝國主義と東アジア』, アジア經濟研究所, 1979, 藤井光男,「新興財閥日本窒素肥料の海外進出」,『日本多國籍企業の史的展開』, 大月書店, 1979, 姜在彦 編,『朝鮮における日窒コンツェルン』, 不二出版株式會社, 1985.

2) 金景林,「1930년대 植民地 朝鮮의 電氣事業」,『韓國史學會』, 1990, 김경림,「식민지 시기 독점적 전기사업 체제의 형성」,『梨大史苑』32, 1999, 김경림,「식민지시기 조선의 독점적 전기 수급구조와 공업구조의 기형화」,『梨花史學硏究』 28, 2001, 오선실,「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전력시스템 전환 : 기업용 대형 수력발전소의 등장과 전력망 체계의 구축」,『한국과학사학회지』 30-1, 2008, 이상의,『일제하 조선의 노동정책 연구』, 혜안, 2006, 이상의,「일제하 전시체제기의 임금통제와 조선인노동자」,『한국민족운동사연구』 57, 2008, 오진석,「1910~1920년대 전력산업정책과 전력업계의 동향」,『한국근현대사연구』 63, 2012①, 오진석,「1923~1930년대 초 전력통제정책의 수립과정」,『사학연구』 108, 2012②.

3) 孫禎睦,「日帝下 化學工業都市 興南에 관한 硏究 上・下」,『한국학보』 59・60, 일지사, 1990, 양지혜,「'식민자 사회'의 형성 - 식민지기 하층 출신 일본인 이주자의 도시 경험과 자기규제」,『도시연구』 7, 2012.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상세하게 밝혔다.

이밖에 수리조합과 청부업자의 이윤 창출과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이하 조선질소)의 노동 운동 및 부전강 발전소 공사에서의 토지 매수 문제 등을 다룬 논문도 있다.[4] 이들 연구들은 하자마구미(間組) 같은 청부업자의 이윤 창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리고 부전강 발전소 건설 당시 토지 매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우가키 총독 부임 이후 조선 공업화 정책과 맞물려 진행된 노동력 동원 정책과 각종 토목 공사 현장에서의 청부업자들의 이윤 창출 상황, 일본질소의 조선 진출 배경과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노동력 통제와 동원 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실제 공사 현장에서 노동력의 동원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회사나 청부업자들의 노동력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 및 그 의의 등을 해명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전강 및 장진강 발전소 건설 현장의 실상에 주목하여, 노동자들의 생활과 그 통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노동자 모집 정책이 공사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실제 현장에서 회사 및 청부업자들의 노동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제 공사 현장에서 조선총독부, 일본질소 및 청부업자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노동자들을 동원하고 통제했음을 밝혀볼 것이다.

논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일본질소의 조선 진출 배경과 부전강 및 장진강 발전소의 건설 과정을 정리할 것이다. 3장에서는 부전강 발전소 건설과 우가키 총독 부임 이후 전개된 장진강 발전소 건설에

---

4) 堀內稔,「朝鮮民衆との摩擦・抵抗」,『朝鮮における日窒コンツェルン』, 不二出版株式會社, 1985, 安秉直,「日本窒素における朝鮮人勞働者階級の成長に關する研究」,『朝鮮史研究會論文集』25, 1988, 由佐秀雄,「日窒の朝鮮における事業展開と間組」,『日本窒素史への證言』 續券第四集, 1989, 곽건홍,「1930년대 초반 조선질소비료공장 노동자조직운동」,『역사연구』 4, 1995도리우미 유타카(小林拓矢),「일제하 일본인 請負業者의 활동과 이윤창출」,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서 조선총독부의 노동력 모집 정책의 변화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4장에서는 부전강 및 장진강 개발에서 발생 중 발생한 각종 사고 기사를 통해 실제 개발 현장의 모습을 살펴본 후, 현장에서 회사 및 청부업자들의 노동자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명해보고자 한다.

2. 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의 조선 진출과 赴戰江·長津江 발전소 건설

일본질소는 1908년 소기(曾木) 전기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일본 카바이드(carbide)[5] 상사의 합병으로 탄생하였는데, 일본 카바이드 상사를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노구치 시타가우(野口遵)이다. 원래 소기 전기주식회사는 800㎾의 출력 중에서 절반을 무료로 일본 카바이드 상사에 공급하였으며, 그 대신에 이익금의 절반을 가져갔다. 두 회사는 사실상 이전부터 하나의 회사나 마찬가지였다.[6]

화학공업에는 전력이 기계장치를 작동시키는 동력원이자 그 자체가 원료로이다. 때문에 전력가격이 생산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노구치가 소기 전기주식회사와 합병한 이유도 저렴한 전력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는 우선 외국 특허를 재빨리 산 후 그 공업화를 위해 공장과 발전소 건설을 병행하였다. 일본질소 창립 직전인 1908년 독일에서 프랑크-카로식(Frank and Caro type) 석회질소 제조법 특허권을 산 후 소기 전기회사와 합병하였으며, 이후 큐슈에 미나마타(水俣) 공장을 건설하였다.[7] 또한, 1923년 이탈리아에서 카잘레(Casale)[8] 암모니아 합성법 특허권을 산 후 노베오카(延岡) 공장을 건설하고 1925년 하나하지(一ツ瀨川) 발전소

---

5) 카바이드(carbide)는 탄화칼슘을 말한다. 칼슘의 탄소화합물로 공업적으로 생석회와 코크스나 무연탄 등의 탄소를 전기로 속에서 가열하여 제조한다. 비료, 아세틸렌의 원료로 사용된다.

6) 金旱雪, 「日窒コンツェルンにおける朝鮮窒素」, 『朝鮮における日窒コンツェルン』, 不二出版株式會社, 1985, pp.88～89.

7) 1895년 독일의 아돌프 프랑크(Adolf Frank)와 카로(N. Caro)는 탄화바륨과 질소를 화합시켜 시안화바륨을 만드는 것을 발명하고, 1901년 프랑크의 아들 앨버트 프랑크(Albert Frank)는 탄화칼슘과 질소로 석회질소을 만들어 이것을 비료로 이용하는 것을 고안했다. 이런 탄화물을 높은 온도에서 질화시켜 석회질소로 만드는 방법을 프랑크-카로법이라고 부른다(化學大辭典編集委員會 編, 성용길 등 역, 『화학대사전』9, 世和, 2001, p.420.).

8) 질소와 수소에서 고압 촉매 반응으로 암모니아를 직접 합성하는 방법이다. 이탈리아의 L. Casale가 1920년에 발명했다(化學大辭典編集委員會 編, 『화학대사전』6, p.140.).

를 건설 하였다.[9] 이처럼, 일본질소의 전원개발과 화학공장 건설은 마치 "시소게임"처럼 전개되었다.[10]

한편, 192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의 발전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100㎾ 미만의 발전소가 과반을 점하고 있었고, 500㎾ 미만의 발전소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선총독부는 정책적으로 1지역 1사업주의를 채택해 전기 회사들의 지역 독점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1920년대의 만성 불황 아래에서도 각 지역의 전기회사들은 고수익을 누릴 수 있었다. 당시의 전기 회사들은 대개 도시 인근에 발전소를 설치해 해당 도시의 전등 수요를 충당하는 형태였다.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공급하는 전등수는 기껏해야 수백, 수천 개에 지나지 않았으며, 발전설비는 설치가 간단하고 비교적 소액이었던 흡입 가스기관을 주로 사용했다.[11]

1920년대 중반까지도 조선의 발전력은 수력발전보다는 대체로 화력 발전에 의존하였다. 한국 최초의 영업용 수력발전소인 원산수력전기의 발전력은 75㎾에 지나지 않았고, 영업용 발전력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20년 1.9% 정도였다. 조선총독부에서는 대량의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수력발전에 주목해 전기과 산하에 수력조사계를 설치하고 1911년부터 1914년까지 제1회 수력발전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경제성이 있는 지점은 39개소, 발전력은 33,909마력(25,296㎾)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중에서 1000마력(746㎾) 이상은 10개소 정도였다.[12] 수력발전은 낙차와 수량이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한국의 하천은 낙차가 작고 여름에 강우량이 집중되며 겨울에는 결빙되어 수량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더욱이 화력 발전는 석탄의 공급이 중요한데, 1910년대 말 석탄 가격이 폭등하면서 화력 발전의 위기가 찾아왔다.[13]

이에 일본에서처럼 조선에서도 수력 발전의 필요성이 커졌다. 마침

---

9) 金旱雪, 앞의 글, pp.89～93.
10) 尹明憲, 「朝窒による電源開發」, 『朝鮮における日窒コンツェルン』, 不二出版株式會社, 1985, p.145.
11) 오진석, 앞의 글, 2012①, pp.121～122.
12) 朝鮮總督府遞信局, 「發電水力調査」, 『朝鮮彙報』, 1917年 6月, pp.9～12.
13) 오진석, 앞의 글, 2012①, pp.117～118.

1919년 12월 16일 金剛山電氣鐵道(이하 금전)가 江原道 淮陽郡 安豊面의 북한강 상류에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 건설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금전은 1923년 11월 7,000㎾ 발전력의 중대리발전소를 시작으로 점차 발전력을 높여갔으며, 여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167㎞에 걸친 66㎸급 고압 송전선을 이용해 서울까지의 송전에 성공하였다.[14] 조선총독부는 1922년 11월부터 1929년까지 제2회 수력발전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전국 150개소 발전지점에서 최대 발전력 294만 ㎾(연평균 188만 ㎾)라는 거대한 수력전기를 획득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얻었다.[15]

일본질소는 미나마타에 암모니아 합성법 공장을 새로 건설하던 중 조선으로 진출하였다. 때마침 이때는 노베오카 공장도 한참 제3기 확장공사 중에 있던 때였다.[16] 이러한 확장과 더불어 저렴한 硫安 비료를 생산해 내기 위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저렴한 전기였다.[17] 하지만 이 시기 일본에서는 5대 전력[18]이 전원 지대를 선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구치가 조선으로의 진출을 결정하게 된 것은 도쿄제국대학 전기공학과 출신으로 노구치와 동급생이었던 모리타 가즈오(森田一雄)와 도쿄제국대학 토목과 출신인 구보타 유타카(久保田豊)의 역할이 컸다.

구보타는 경성일보 사장 소에지마 미치마사(副島道正)의 초청으로 조선에 와서 5만분의 1의 조선 지도를 구한 후 도쿄로 돌아갔다. 그때 모리타가 방문하였고, 둘은 1주일 동안 그 지도를 분석하였다.[19] 그리고 부전강 및 장진강의 잠재적 가능성을 확인한 후, 구보타는 노구치에게 이른바 '유역변경식' 발전소 건설을 제안하였다.

이에 일본질소는 소에지마를 대표발기인으로 하여 부전강 개발권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당시 전력수요로 봤을 때 터무니없는 대계획이라 판단하여, 전력 소비를 우선 확보하는 것을 허가조건으로 내세웠다. 실제로 1925년 당시 조선의 총발전능력이 3만 7,000㎾인데 비하여

---

14) 오진석, 앞의 글, 2012②, p.156.
15) 『朝鮮水力調査(總論)』, 朝鮮總督府遞信局, 1930, p.58.
16) 松岡信夫, 앞의 글, p.182.
17) 硫安 비료는 황산암모늄이 주성분인 암모니아계 질소를 함유하는 비료이다.
18) 5대 전력은 東京電灯, 東邦電力, 大同戰力, 日本戰力, 宇治川電氣를 말한다.
19) 久保田豊, 「私の履歴書」, 『私の履歴書 : 経済人 9』, 日本経済新聞社, 1980, p.271.

수요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20] 일본질소는 부전강 20만㎾, 장진강 30만㎾를 출원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에서는 계획안을 먼저 제출했던 미쓰비시의 우선권을 중시하였다. 노구치는 政友本黨 이후 계속 지원하고 있던 民政黨 의원 시게마쯔 시게하루(重松重治)를 통하여 시모오카 주지(下岡忠治) 정무총감에게 압력을 넣었다.[21] 결국 부전강 개발권은 일본질소에게, 장진강 개발권은 미쓰비시에게 허가되었다.[22] 이처럼 일본질소의 부전강 개발권은 정관계 로비를 통해서 얻어낸 것이다.

일본질소가 편찬한 『日本窒素肥料事業大觀』에서는 "當社가 단지 利權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구체화하여 사업화한 실력, 결심 등 뿐만 아니라 당사가 계획한 사업이 국가적으로 심히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당사에 허가되었다"[23]라고 했지만, 노구치가 조선으로 진출한 것은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발전소를 건설한 후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이용하여 저렴한 유안을 생산하기 위해서였다. <표 1>은 1920년대 중반 일본 유안의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일본 국내 硫安의 공급량

단위 : 톤

연도	생산량(A)	수입량	합계	일본질소의 생산량(B)	B/A(%)
1924	108,713	168,397	277,710	61,084	56.18
1925	131,138	233,697	364,835	61,394	46.81

출전 : 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 編, 『日本窒素肥料事業大觀』, 1937, pp.576～577.

<표 1>을 보면, 1925년 일본에서의 유안 생산량은 13만 톤이었으며

20) 『동아일보』, 1925년 5월 26일, '北鮮水力電氣 某消息通談'.
21) 시모오카 주지(下岡忠治)는 1895년 7월에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였고, 1896년 1월에 구마모토(熊本) 현 參事官으로 취임하였으며 교토(京都)부 참사관 등을 역임하였다. 1906년 11월에 아키타(秋田) 현 知事가 되었고 1908년 10월에 農商務省 農務局長이 되었다. 이후 제2차 오쿠마(大隈) 내각에서는 內務參政官으로 취임하였고, 1924년 7월에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으로 취임하였다.
22) 金旱雪, 앞의 글, p.95.
23) 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 編, 『日本窒素肥料事業大觀』, 1937, p.466. 일본질소는 조선 진출 10주년을 기념하여 이 책을 편찬하였다.

독일・영국・미국 등지에서 수입량 분량은 23만 톤이었다. 그래서 1924년 제49회 帝國議會이후 여러 차례 비료문제가 논의되었으며, 1927년 제53회 제국의회에서는 '肥料調査委員會'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했던 노구치는, 대략 1년동안 1㎾의 수력 발전소 생산 전원으로 2톤의 유안을 생산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물 부족 현상을 고려해 약 15만㎾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면 수업하던 유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24]

부전강 수력 발전으로부터 처음 예상했던 20만㎾ 내지 18~19만㎾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유안은 40~50만 톤 정도를 생산해 낼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23만톤의 수입량을 대체하고도 10만~20만 톤이 남을 것이다. 일본질소는 이러한 과잉분을 국외로 수출하기로 계획하였다. 당시 유안의 시가는 1톤 당 185엔이으므로, 일본질소는 이를 100엔 이하로 수출하더라도 충분이 이윤이 남을 것으로 확신하였다.[25]

100엔 이하의 저렴한 유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전소 건설비용을 절감해 1㎾당 건설비를 최대한 낮출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저렴하게 토지를 매수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출 필요가 있었다. 발전소 부지 매수나 노동력 모집 등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노구치는 조선으로 진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질소는 발전소, 공장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를 최대한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부전강 및 장진강 개발에서는 토지 매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다보니 각종 불상사가 속출하였다. 부전강 개발의 경우에는 비료 제조 공장의 토지 매수 문제가 1927년 6월부터 불거졌다.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일본질소는 군당국과 경찰의 힘을 얻어 주민들이 토지를 팔도록 강매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군수가 직접 나서 비료 제조 공장이 함흥에 들어오는 것은 함흥의 자랑거리라며 경찰서장, 순사 등을 대동하고, 지주들에게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기도 하였다.[26]

---

24) 鎌田正二, 「肥料調査委員會における野口さん」, 『日本窒素史への證言』 續券第四集, 1989, p.143.
25) 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 編, 앞의 책, p.466.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회사측에 가담한 주민들과 가담하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일도 있었다. 주민 일동이 회사측에 가담한 사람들을 배척하자고 다짐한 와중에, 회사 측에 가담한 주민의 아들 결혼 잔치가 열렸다. 그런데 다짐을 했던 주민들 중 3-4명이 잔치에 참석하자, 이를 제지하는 와중에 충돌이 일어나 경찰이 군중을 해산시켰다.[27] 또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주인이 없는 집 建坪을 측량하다가, 이를 거절하면 주민들을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28]

한편 부전강 공사 당시, 주민들이 땅을 팔고 이전할 예정인 구룡리라는 곳은 "풍랑이 조금만 있으면 어선 하나라도 붙일 수 없는 바닷가이며 집을 지으려 해도 비가 조금만 오면 바닥에 물이 괴이고 뒤편에는 큰산이 가리워 농사 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다.[29] 회사 측은 주민들의 주거 이전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였다. 또한 실제 부전강 공사에 종사했던 金河春은, "노구치가 이 공사는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의의가 있으므로, 주민들이 토지를 제공하는 대신 산을 독차지해서 자유롭게 개한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이 산으로 새롭게 개간하러 들어가자 이번에는 조선총독부가 '山間開墾嚴禁令'을 공포하여 그 지역에 주재소 3곳을 설치하고 엄격한 단속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30] 토지를 판 주민들은 결국 부전강 공사장에 취직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조선총독부가 '火田 開墾 嚴禁令'을 내린 것은 1925년의 일이었으므로,[31] 노구치는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음에 틀림없다. 이처럼 노구치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32]

일본질소가 부전강 제1발전소를 거의 완성해갈 무렵, 세계대공황이 시작되었다. 1920년대 말 세계대공황은 자본구조가 취약했던 일본자본주의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일제는 국가가 기업조직과 경제 운영

---

26) 『동아일보』, 1927년 6월 14일, '咸興窒素敷地問題眞相 重大事件接種으로 千餘住民生活不安'.
27) 『동아일보』, 1927년 6월 16일, '咸興窒素敷地問題眞相'.
28) 『동아일보』, 1927년 6월 17일, '咸興窒素敷地問題眞相'.
29) 『동아일보』, 1927년 6월 14일, 앞의 기사.
30) 藤鳥宇內, 「朝鮮における企業犯罪」, 『朝日ジャーナル』, 1972년 8월 18일, p.20.
31) 『동아일보』, 1925년 11월 20일. '唯一의 生途인 火田耕作을 禁止'.
32) 松岡信夫, 앞의 글, pp.196-197.

전반에 대해 직접적·조직적으로 간여하여 그것을 통제하는 통제 경제 체제로 진입하였다.[33] 이후 일제는 공황 타개를 위해 안으로는 독점체제를 강화하고 밖으로는 日·鮮·滿 블록 구상을 내세워 침략전쟁을 통해 경색된 자본축적 구조를 돌파하고자 하였다.

당시 일본의 하마구치(浜口) 내각은 노동생산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산업합리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산업합리화란 생산설비와 기술의 개선, 능률 증진, 생산비 인하, 품질 통일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기업간의 경쟁을 억제하는 기업의 합동과 연합, 카르텔 결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일본 상공성은 1931년 중요산업통제법을 제정하여 독점자본을 위한 카르텔 육성정책을 펼쳤다.[34]

중요산업통제법의 입법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일본의 중요산업에 대한 규율과 통제를 위해, 정부가 나서 민간 업자를 강제로 통제에 복종시키고자 하는 데 있었다. 이에 의해 종래 통제력이 약했던 민간 업자로 하여금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케 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둘째, 종래는 전체 업자가 자치적으로 감독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주무대신의 감독 하에 놓이게 되어 만약 소비자의 이익과 타산업의 공정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에 대한 취소와 변경을 행하고자 한 데 있었다.[35]

하지만 이 법은 일본에서 시행되었을 뿐 조선에서는 그 법률적인 효력이 없었다. 이에 1930년 이후 조선 공업화 정책이 전개되는 가운데, 조선에 진출한 일본의 독점 자본은 합법적으로 통제를 피하는 일이 많았다.[36]

그러나 산업합리화에서 중요시되었던 '勞資協助'는 조선에서도 강조되었다. 가토 게이자부로(加藤敬三郎) 조선 은행 총재는 산업합리화에 대

---

33) 방기중, 「1930년대 조선 농공병진정책과 경제통제」,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혜안, 2004. pp.69~70.

34) 김미현, 「1930~1936년 일제의 노동통제정책」,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5.

35) 『동아일보』, 1931년 4월 22일, '議會를 通過한 重要法案 十六'.

36)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 주익종 역, 「1930년대 조선 '공업화' 정책의 전개과정」,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사계절, 1983, p.83.

한 연설에서 노자협조를 강조하였다. 그는 독일의 산업합리화를 예를 들면서 “독일의 산업 발전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각성을 전제로 조국의 부흥을 목표로 그 제품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싸게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이며, 노동자는 임금을 탐하지 않고 자본가는 사업에 전력을 다한 거국일치의 결과”라고 평하였다. 그리고 “산업합리화를 완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간단히 과학적 지식을 적용해 소위 능률의 증진을 계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노자 양자의 각기 다른 입장을 적절히 조화시켜 모두 국가적 착안점을 갖는 것을 근본으로 해야 한다”[37]고 하면서 노자협조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는 허울좋은 명분에 불과했고, 산업합리화 정책은 조직적인 노동강화를 통해 잉여가치를 증대하려는 것이었다. 독점자본은 이를 이용하여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다. 일제하 조선에서 산업합리화 정책은 임금 삭감, 노동강도의 강화, 해고 등의 수단으로 행해졌다.[38]

한편, 1920년대 전반기에 잠깐 논의되었다가 사라진 공장법에 대한 논의가 대공황 이후 1930년대 다시 본격화되었다.[39] 이는 대공황 이후 산업합리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이 요구되자 이에 저항하는 노동쟁의가 급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내부의 여러 분과의 의견 대립과 자본가들의 반대로 결국 시기상조론이 우세하게 되어 입안이 중지되고 현상유지의 방침으로 결정되었다.[40] 1936년 3월 경무국장 이케다 기요시(池田淸)는 공장주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공장법의 시행은 조선에서 시기상조이므로 법률에 의하지 않고 勞資協助의 實을 거두고자 한다”며 공장법 적용의 유보, 폐기를 공식 표명하였다.[41]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데에는 우가키 총독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였다.

---

37) 『每日新報』, 1930년 1월 7일. ‘産業合理化는 勞資協助가 緊切’.
38) 김미현, 앞의 논문, p.6.
39) 공장법은 일본에서 1911년 제정・공포되어 1916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노동 시간・최저 연령・休養・療養 및 扶助・위생 등 여러 규정을 망라하고 있다(杉本英一, 『土木建築並商工業關係法規通解』, 帝都興信所, 1930, pp.336-369.).
40) 이상의, 앞의 책, pp.93～103.
41) 朝鮮總督府, 「警務局長の工場主招待」, 『朝鮮』 252, 1936年 5月, p.137.

우가키는 외래의 대재벌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 조선은 공장법을 아직 시행할 시기가 아니라며 시기상조를 내세웠다.[42] 그는 조선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일본질소 등 일본 독점자본의 유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다.[43] 우가키의 이러한 주장은 과거 그의 행보를 볼 때 총독으로 부임하기 이전부터 이미 구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가키는 1902년부터 1904년까지 독일에 유학하였으며,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귀국하여 참전한 적이 있다. 그는 원산 後備 제1사단 參謀로 부임하여,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를 거쳐 북상하였다.[44] 그때 그는 실전에는 참가하지 않고 주로 정보 수집 업무를 하면서 북한 지역에 대한 정보도 많이 축적했다.[45] 이때의 경험이 이후 일・선・만 블록 구상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그는 1931년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 1927년 임시 총독으로 부임한 적이 있다. 당시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를 순시하였으며,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함경북도를 시찰하려 계획하고 있었다. 임시 총독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그는 북한 지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그가 오사카(大阪) 在鄕軍人會 幹部會議 석상에서 강연한 내용 중 일부이다.

> 조선의 함경남북도, 이 방면은 (중략) 최근 각종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두만강 상류의 大森林・金・鐵鑛・石炭・水電 등이 각지에 산재하고, 미작도 가능함이 훌륭히 증명되고, 면양 사육에 가장 적합한 목장 지대도 있는 듯하다. 함경남도에 있어서는 조선질소의 대발전과 장진강에 있어 미쓰비시의 계획에서 보이듯이 특히 수력전기가 풍부해 대공장 지대로서의 요소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46]

위의 연설문에 언급된 것처럼, 우가키는 북한 지역에 지하자원이 풍부하다는 사실과 부전강 발전소와 장진강 발전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다. 즉 우가키는 평소 '日本海 中心 時代'[47]를 강조하며 총독으로 부임하기

---

42) 『동아일보』, 1935년 10월 11일, '工場法實施 明年에도 絶望'.
43) 김미현, 앞의 논문, pp.60-65.
44) 鎌田澤一郎, 『宇垣一成』, 中央公論社, 1937, p.164.
45) 이정용, 「군부대신현역무관제와 우가키 가즈시게」, 『日本硏究』 12, 2004, p.17.
46) 鎌田澤一郎, 위의 책, p.342.
47) 鎌田澤一郎, 위의 책, p.339.

전부터 조선을 동아시아 블록화 체계 내에서 주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주, 중국까지 연결되는 그의 블록화 구상에 있어 동해를 따라 이어지는 만주와 이어지는 조선, 특히 함경남북도를 중심으로 한 북한 지역은 점차 긴요한 지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가키가 총독으로 부임하고 나서 2개월 뒤, 만주사변이 발발하였다. 이후 1933년 3월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하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은 일·만 연합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 되었으며, 우가키는 "일본의 광명은 반도에서, 반도의 광명은 북선에서"라는 구호 아래 적극적으로 북한 지역 개척 사업에 나섰다.[48]

본격적인 북한 지역 개척 사업에 나서기 위해 우가키는 일제하 조선의 전력정책을 정무총감 이마이다 기요노리(今井田淸德)에게 맡겼다. 이마이다는 통신사업 방면의 연구를 위해 영국, 독일, 프랑스에 유학한 엘리트로서, 오사카(大阪) 中央郵遞局長·고베(神戶) 遞信管理局 總務副長·遞信省 通信局 電話課長, 도쿄(東京) 遞信局長, 구마모토(熊本) 遞信局長 등을 역임한 遞信 관련 전문가였다. 북한 지역 전력상업에 대한 여러 구상이 논의되었는데, 그는 전기산업에 대한 전체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지방 공영화안을 배제했고, 발전·송전 국영화안도 재정상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후 최종 기업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제2차 朝鮮電氣事業調査會가 1931년 10월에 개최되었다. 여기서 결정된 세부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일단 많은 자본이 필요한 발전회사는 거대 민영회사가 맡는데,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각 수계별로 하나의 민영회사에게만 사업권을 허가해 주기로 하였다. 배전사업의 경우, 전국을 5개로 분할하여 각 지역에 하나씩의 대기업을 두어 이를 중심으로 난립해 있는 소규모 전기회사들을 통합함으로써 전기회사들의 질적 향상을 꾀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전과 배전을 잇는 송전망 건설은 국영회사가 담당하여, 발전과 배전 부분의 민영회사의 독점을 견제하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한편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49]

---

48) 安裕林, 「1930年代 總督 宇垣一成의 植民政策 : 北鮮收奪政策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p.35~41.

마침내 1932년 2월 조선총독부 제령 1호 '朝鮮電氣事業令'[50]이 공포됨에 따라 본격적인 전력통제정책이 시작되었다. 또한 우가키는 북한 지역 개발을 위해 행정기구부터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1932년 7월 조선총독부 내에 農林局이 설치되면서 그 밑에 北鮮開拓界를 두었다. 그리고 첫 단계는 富原을 개발한다는 슬로건 아래 교통사업과 삼림사업이 행해졌다. 그 다음, 공업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 지역의 고지대에서 아마 재배와 양의 사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조선총독부의 광산과를 확충하고 광산 개발에 적극 나섰다.[51]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는가였다. 이미 장진강 개발권을 미쓰비시에게 넘겼지만 장진강 발전소 공사에 진전이 없자[52], 우가키는 미쓰비시의 장진강 개발권을 회수하였다. 그리고 2년 안에 발전소를 지어 발전량의 1/2을 공공용으로 내놓는다는 조건 하에 일본질소에 넘겨 주었다. 사실, 우가키는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노구치와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에 있었으며, 북한 지역 개발이라는 사업 구상과 마침 일치하여 노구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53] 노구치 또한 우가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노구치가 우가키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그가 조선총독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소록도 요양소에 1만 원 정도를 기부하였기 때문이다.[54] 우가키는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인

---

49) 오선실, 앞의 논문, p.26.

50) 조선전기사업령은 전문 4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의 가장 큰 특징은 전기사업에 대한 조선 총독의 권한이다. 출원(3조), 공사 시행(4, 5조), 休止 및 廢止(18조), 전기요금(20조), 확장(21조), 전기사업의 회계(25조), 양도(28조), 합병(29조), 관리 및 위탁(30조) 등에서 모두 조선 총독이 결정하거나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朝鮮電氣事業史編纂委員會, 『朝鮮電氣事業史』, 中央日韓協會, 1981, pp.166～172.).

51) 安裕林, 앞의 논문, pp.42～65.

52) 당시 미쓰비시 측에서도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장진강 개발의 이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 하지만 발전량의 1/2을 공공용으로 내놓는다는 조건 때문에, 수뇌부에서는 장진강 개발을 둘러싸고 의견이 크게 대립하였다. 하지만 결국 미쓰비시 은행의 쿠시타 만자우(串田萬藏)의 입김으로 개발을 단념하였다(片桐龍吉, 『半島の事業王 野口遵』, 東海出版社, 1939, pp.100～102.).

53) 大場鐘作, 「電氣化學工業界の父」, 『野口遵は生きている-事業スピリットとその展開』, 1964, p.77.

54) 鎌田澤一郎, 앞의 책, pp. 88～89.

1924년부터 1931년까지 육군대신의 자리를 지키며, 재벌기업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음으로써 일본 군벌 안에서 확고한 세력 기반을 쌓을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조선에도 적용하여 노구치를 '조선의 전력왕'으로 육성하였다.[55] 노구치는 조선 사업계에서 우가키 총독의 오른팔, 재정・경제 고문으로 불리기도 하였다.[56]

1933년 5월 11일, 노구치는 자신이 전액 출자하여 공공용 발전회사인 長津江 水電을 설립했다. 구보타는 장진강 수전의 상무이사를 맡아 실질적인 공사, 감독, 경영을 담당했다.

장진강의 경우는 미쓰비시가 이의 개발을 맡았을 당시부터 지주들의 강력한 반대로 토지 매수가 쉽지 않았다. 부전강의 경우처럼 군수와 경찰을 통해 강압적으로 매수를 시도했지만, 지주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하였다. 이렇게 토지 매수가 쉽지 않았던 상황에는 신간회도 큰 활약을 하였다.[57] 그러나 개발권이 노구치에게 넘어간 후, 일본 질소는 토지 매수 협상을 마무리 하지 않은채 공사를 시작해 버렸다.[58] 그에 따라 지주와 인부들 사이에 충돌이 끊이질 않았다.[59]

회사 측은 노동자 실업군을 교묘히 이용하여 상황을 타개하려 하였다. 당시 기사를 보면, 철도 부설에 약 천여 명이 필요했었는데, 4천여 명이 모여들기도 했으며[60], 공사를 위해 신축한 가옥 3백여 호에 이주한 노동자들이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곤경에 처하기도 하였다.[61] 다음 기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보여준다.

---

55) 우가키가 1937년 1월, 일본 천황으로부터 내각을 조직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노구치는 도쿄로 달려 가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일에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高承濟, 『韓國 社會經濟史論』, 一志社, 1988, pp.382～383.).

56) 片桐龍吉, 위의 책, p.215.

57) 『동아일보』, 1927년 11월 27일, '長津, 咸興問題 報告演說도 禁止'; 1927년, 12월 4일, '長津水電問題로 警告文과 激勵文'.

58) 『동아일보』, 1933년 5월 19일, '長津江水電 工事에 着手'.

59) 전기가설 부주임 도진학의 부하 인부들이 지주의 승낙도 없이, 곡물이 무성한 밭을 통해 전신주를 가설하여 일대 격투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인부들은 "토지가격은 도지사가 지정할 것이고 자기들은 관계없다며"라면서 공사를 강행했는데, 이를 통해 일찌감치 도지사가 이 공사에 간여했음을 알 수 있다(『동아일보』, 1933년 8월 1일, '말없이 土地使用 地主와 電工大衝突').

60) 『동아일보』, 1933년 8월 24일, '東興水電工事에 各地勞動者雲集'.

61) 『동아일보』, 1933년 10월 22일, '地主의 承諾도 없이 堰堤工事에 着手'.

남상학 씨 토지에 지주의 승낙도 없이 堰堤根堀 공사를 착수하였다는데 남상학 씨는 회사와 청부업자인 西松組에 항의하였으나 회사와 西松組는 공사를 착수한 일이 없다고 전연 책임을 회피하므로 이에 남상학 씨는 그 공사를 책임으로 착수한 이광하 씨를 걸어 고소를 제기하리라고 한다.

이광하 씨 談. 지주의 승낙 없이 공사를 착수하였음은 대단히 미안한 일이올시다. 사정상 부득이하외다. 4-5개월 전부터 수전 공사에 생명을 의지하고 장진군 내에 이주한 노동자 영업자를 합하면 재래 주민의 3배 이상인데, 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이 다수의 노동자들의 사활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공사 착수가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 공사를 믿고 4개월 전에 인부 30여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이에 결심하고 동무들과 함께 공사를 단행하였습니다.[62]

『동아일보』에 실린 위 기사를 통해 이광하가 인부 30여 명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통해 그는 십장임을 추론할 수 있다. 공사 책임자인 이광하는 회사와 청부업자의 동의 하에 공사를 진행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남상학이 지주의 승낙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에 항의를 하자, 회사와 청부업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십장인 이광하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에 이광하는 결국엔 위 기사처럼, “다수의 노동자들의 사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며 공사 착수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 문제는 1933년 12월 20일, 무려 7년여 동안 토지 매수를 반대해 온 장진 지주회가 회사 측과 타협한 후 해산하며 해결되는 듯했다.[63]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주들은 토지 매각에 끝까지 반대하였다. 이에 조선총독부에서는 부전강 개발 당시에는 조선총독부 농무과에서 사람을 출장[64]보내는 데 그쳤으나 장진강 개발에서는 지주들이 끝까지 반대한 토지에 “수용령”을 적용[65]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조선에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았다.

1. 국방 및 기타 군사에 관한 사업
2. 관청 또는 공공 관서 건설에 관한 사업
3. 교육, 학예 및 자선에 관한 사업

62) 『동아일보』, 1933년 10월 22일, 앞의 기사.
63) 『동아일보』, 1933년 12월 23일, ‘土地收用에 관한 損失報償問題’.
64) 『동아일보』, 1927년 11월 24일, ‘總督府高官出張 住民은 더욱 緊張’.
65) 『동아일보』, 1934년 1월 2일, ‘長津水電問題’.

4. 철도, 궤도, 도로, 교량, 하천, 제방, 운하, 用惡水路, 溜池, 船渠, 항만, 부두, 수도, 하수, 전기, 와사 또는 화장장에 관한 사업
5. 위생, 측후, 항로표지, 방풍, 방화, 수해예방, 기타 공용의 목적으로써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시설하는 사업
6. 한 장소에서 일년 35,000톤 이상의 제철능력 및 일년 35,000톤 이상의 제강능력을 가진 설비로써 경영하는 제철사업[66]

여기서 조선총독부는 5번 조항을 근거로 토지 수용령을 공포하였다. 일본에서와 달리 조선에서는 토지수용에 불만이 있을 때 내무대신에게 訴願할 권리나 行政裁判所에 出訴할 권리가 전혀 없었다. 또한, 보상금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通常裁判所에 出訴할 권리도 없었다. 다만,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지방장관이 결정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 기업가나 관계인이 불만이 있을 경우, 총독의 裁定을 구할 수 있었다. 이 총독의 결정에는 시정할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제시한 토지 및 건물 단가는 건물 5원에서 30원, 전답 20전에서 1원, 위자료 1인당 백원에서 300원으로, 10년 전 미쓰비시가 제시한 단가와 큰 차이가 없었다.[67]

1933년 6월 흥남과 함흥을 잇는 철도공사로 시작된 장진강 유역 개발사업은 1933년 10월 본격적인 댐 공사 착공 후 2년여 만인 1935년 10월 제1 발전소가 준공되어 14만 4000kW의 발전력을 확보했고, 그해 11월 평양까지 고압 송전을 개시했다. 이후 1938년까지 제2, 제3, 제4 발전소가 차례로 완공되어 장진강 발전소는 총 32만kW의 전원을 확보하게 되었다.[68] 이렇듯 장진강 발전소는 시공에서 고압 송전까지 2년이라는 놀랍도록 짧은 시간에 완공되었다.

이는 일본질소가 조선총독부 및 군과 경찰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일본질소가 군 당국과 경찰의 힘을 빌려 토지 매수를 강요하고, 결국 장진강 개발에선 토지 수용령을 강제로 적용한 결과 ㎾당 건설비는 매우 낮아질 수 밖에 없었다. <표 2>는 부전강 및 장진강 발전소의 ㎾당 건설비를 정리한 것이다.

---

66) 『동아일보』, 1935년 2월 19일, '羅津土地問題의 一例 三, 行政處分에 匡正制度가 緊急'
67) 『동아일보』, 1935년 7월 1일, '收容公告期間도 已過 意見提示 겨우 廿九名'
68) 오선실, 앞의 논문, pp.25-31.

<표 2> 부전강 및 장진강 발전소 kW당 건설비

기준 : 1935년 4월 말

발전소	건설비(엔)	최대출력 (kW)	연발전량 (1,000kW)	1kW당 건설비(엔)
부전강	50,503,000	190,000	1,051,200	265
장진강	35,000,000	140,000	1,156,320	250

출전 :『東洋經濟新報』, 1935년 8월 10일, '日窒コンツェルンの解剖'.

<표 2>를 보면 부전강의 경우 1kW당 건설비는 265엔으로 이는 일본 5대 전력의 평균 1kW당 건설비 474원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었다. 장진강의 경우는 이보다 더 낮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실제 유안 제조에 들어가는 비용은 42.6엔으로, 이를 100엔으로 판매한다면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또한 발전단가로 환산했을 때 kW당 2.7전으로 일본 수력 발전소의 평균 발전단가 20.4전에 비해 1/10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69]

일본질소는 조선에 진출한 후, 다음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발전소 건설과 공장의 설립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69) 朝鮮電氣事業史編纂委員會,『朝鮮電氣事業史』, 中央日韓協會, 1981, pp.133~137.

<표 3> 1926~1943년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의 사업현황

연도	수력 발전소 건설	공장 건설
1926	- 朝鮮水電株式會社 설립 - 부전강 수전공사 시작	
1927		-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 설립 - 흥남공장 건설 착수
1929	- 부전강 수전공사 제1기 공사 완공	
1930	- 부전강 수전공사 제2기 공사 완공	- 조선수전주식회사,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 합병 - 흥남공장 제1기 공장 硫安제조 개시 - 흥남공장 제2기 공장 완성
1933	- 장진강수전주식회사 설립	- 永安工場[70] 메탄올 제조 개시
1935	- 장진강 제1발전소 운전 개시	
1936		- 朝鮮大豆化學工業을 합병 - 아오지 석탄 공장 건설 착수 - 本宮工場 석탄질소 제조 개시
1937 ~ 1943	- 허천강 발전소 건설 - 압록강 水豊발전소 건설	- 일본질소의 조선질소 흡수 합병

출전 : 尹明憲,「朝窒による電源開發」,『朝鮮における日窒コンツェルン』, 不二出版株式會社, 1985, p.145을 토대로 재구성.

일본질소는 부전강 수전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흥남 공장을 건설했다. 이후 장진강 수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으며, 아오지 석탄 공장 및 本宮工場을 건설하였다. 이후 허천강 발전소를 건설하였고 공장을 확대하였으며, 다시 압록강에 수풍 발전소를 건설하였다. 즉, 발전소 건설 → 공장 확대 → 발전소 건설 → 또다른 공장 확대 순으로 사업을 전개하였다. 창립당시 일본질소의 자본금은 100만엔에 불과했는데, 조선에 진출한 이후 자본금이 1930년 3,925만 엔, 1935년 6,750만 엔, 1940년 2억 엔으로 늘어났다. 일본질소 콘체른 전체로는 1930년 약 8,000만 엔, 1935년 1억 9,826엔, 1940년 6억 4,171만이 되었다.[71]

70) 조선질소가 함경북도 明川郡 西面에 석탄 低溫乾溜工場 건설에 착수하고 이를 영안공장이라 불렀다.

일본질소가 저렴한 비료 생산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전기 생산이 필수 조건이었다. 그러나 일본 내의 중요 전원 지대는 이미 5대 전력 회사가 선점하고 있었으며, 이에 일본질소는 식민지 조선으로 눈을 돌렸다. 저렴한 전력 생산을 위해서는 발전소 건설 단가를 낮추는게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부전강 개발 공사 당시에는 군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압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장진강 개발 공사에서는 토지 수용령을 적용하여 낮은 단가에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저렴한 노동력을 동원하여 ㎾당 건설비를 낮추었다. 특히 자가용 발전소로 건설되었던 부전강 발전소와는 달리 장진강 발전소는 처음부터 조선총독부의 관리·감독 하에 건설되었다. 자금 융통, 토지 매입, 노동력 확보 등에서 조선총독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71) 호리 가즈오(堀和生), 앞의 책, pp.272~273.

3. 조선 총독부의 노동력 斡旋과 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의 노동자 고용

부전강 개발 공사는 매일 8,000~15,000명 정도의 노동자가 종사할 정도로 대규모 공사였다.[72] 이 공사의 성공 여부는 저렴한 노동력 확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공업의 발전이 전개되지 않은 조선에서 충분한 노동력을 구하기 쉽지 않았다. 도시 노동자의 대다수는 농촌에서 유리된 농민 출신이었는데, 그들의 상당수는 조선보다 돈벌이가 좋은 일본으로 눈을 돌려 도항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총독부는 渡日 노동자 수가 급증하자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엔 「勞動者募集斷續規則」을 제정하여 노동자 도일 자체가 아니라, 조선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단속을 통해 도일을 통제를 시도하였다. 그러다가 3·1 운동 이후, 「朝鮮人 旅行 斷續에 관한 件」을 발표하여 소위 '여행증명서' 제도를 시행하였다. 여론의 반대에 밀려 공식적으로는 1922년 12월에 폐지된 여행증명서 제도는 관동대지진 이후인 1923년 12월 중순 사실상 복구되었으며, 심지어 더 강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 시민을 비롯해 전국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일본 내 기업들의 요구도 있어서 1924년 6월 1일에 결국 종래의 도일 제한을 철폐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1925년 이후 일본에서 불황이 지속되자, 마침내 1925년 11월 조선총독부의 새로운 도항 저지 방침이 확정되어 실시되었다.[73]

이 새로운 도항 저지 방침은 도일을 목적으로 부산에 모여 들었던 노동자들에게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부산의 여관은 저지당한 사람으로 인해 가득 찰 정도"였으며, "하소연하는 울음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할

72) 安秉直, 앞의 글, p.168.
73) 金銀英, 「1920년대 조선인 노동자의 구직 渡日과 부산시민대회」, 『歷史敎育』 136, 2015, pp.168~188.

만큼 도일의 길이 막혀 곤란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다.[74] 부산수상경찰서의 조사에 따르면 1925년 이래 도항자 수가 감소하다가 1926년부터 급증하여 매일 평균 600여 명의 도항을 저지하는 상태였으며, 그중에는 일본으로 밀항하다 일본 관헌에 의해 송환된 수도 상당수 있었다.[75] 이처럼 도항이 어려워지면서 부산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졌고 이들의 실업 문제가 심각해졌다. 조선총독부는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 부산에 모여든 도일 희망 노동자들을 부전강 수전 공사장으로 보내기로 계획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우선 부산부에 위탁하여 노동자를 모집토록 하였다. 그 결과, 1926년 7월에는 임금 70전에서 1원 20전의 조건으로 약 100여명이 응모했으나, 12월 제2차 모집은 실패했으며, 이어 3차 모집에서도 실패하였다.[76] 또한, 경상남도에서도 1926년 7월 일본으로 가려는 노동자 200여 명을 부전강 수전 공사장으로 보냈으나, 10월에는 응모자가 없어 실패하였다.[77]

응모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일본질소는 이처럼 조선총독부로부터 큰 후원을 받았다. 조선총독부는 社會科員을 부산에 파견하여 조선인 인부를 함남으로 가도록 주선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본격적으로 조선인 노동자의 '배출구'로 활용하려는 의향이 있었다.[78] 북한 지역 이주는 '조선인 노동자에게 복음'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도항 노동자들을 통제하여 단체로 북한 지역으로 '배출'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79]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조선수전회사의 의뢰에 응하면서, '무직자 구제의 의미에서 알선'하고 있다고 선전하였다. 이를 위해 각도의 지방과에 의뢰하여 1조당 50명씩 단체로 이송하기도 하였다.[80] 이처럼 부전강 개발 공사부터, 이미 조선총독부, 경상남도, 부산부 등 각 행정기구가 전부 협력

74) 『동아일보』, 1927년 3월 7일, '淚海化한 釜山棧橋 阻止者每日千五百'.
75) 『동아일보』, 1927년 8월 10일, '所謂漫然渡航 阻止後狀況'.
76) 堀內稔, 앞의 글, p.280.
77) 『동아일보』, 1927년 1월 18일, '咸南水力電氣工夫를 釜山에서 또 募集'.
78) 『京城日報』, 1926년 8월 13일, '鮮人勞動者の福音 不景氣な內地へ行くよりも 有望な咸南の水電に行け'.
79) 松岡信夫, 앞의 글, p.197.
80) 『京城日報』, 1926년 10월 20일. '例の漫然渡航者を 北鮮水電工事へ'.

하여 노동자를 모집하였다.[81]

한편, 조선총독부는 1927년부터 여비를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이주를 장려하기도 하였다.[82] 즉 조선총독부는 여비를 회사에서 대여하도록 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사람에게는 갚지 않아도 되고 계속해서 2개월 이상을 더 근무하면 돌아가는 여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노동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경상남도 地方科員들이 매일 부산에 나가 함흥으로 가는 노동자들을 모집하였으나 큰 성과가 없었다.[83]

이후로도 총독부 내무국 사회과는 1927년 9월부터 科員을 부산에 다시 파견하여 노동자에게 차비까지 다 지급하고 수전 공사장으로 보낸 이래, 1928년 7월까지 900여 명을 보냈다. 이때 임금을 60전 이상 1원 20전까지로 약속했으나, 대부분 실수령액은 많아봤자 80전 가량이었다. 이 액수는 중국인 노동자들보다도 적은 임금이었다. 또한 위험한 공사 현장과 비싼 물가에 비해 임금은 낮았기 때문에, 차라리 경성 등의 대도회지에서 보통 임금 70전을 받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대부분 부산으로 돌아갔으며, 남아있는 사람은 약 40%정도밖에 되지 않았다.[84] 조선인 노동력이 충당되지 않자 회사 및 청부업자들은 대신에 중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하였다. <표 4>는 1929년 당시 함경남도 노동자의 수를 정리한 것이다.

---

81) 조선총독부에서는 인부 모집을 위해 3000매의 모집 선전지를 배포하기도 하였다(『京城日報』, 1927년 1월 21일, '鮮人勞動者を釜山で喰止める'.).

82) 이상의, 앞의 책, p.133.

83) 『동아일보』, 1927년 1월 18일, 앞의 기사.

84) 『동아일보』, 1928년 7월 18일, '咸電勞動者 六割은 撤歸'.
조선총독부 사회과에서는 이렇게 노동자들이 돌아간 이유를, 조선인 노동자들이 자부심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조선총독부가 일자리를 알선해 준 것을, 오히려 노동자들이 "은혜를 베풀어 취직한 것"처럼 여기고 음식물도 돈이 들어간 것만 먹는 등 매우 교만하기 때문이라며 노동자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京城日報』, 1926년 12월 24일, '氣位ばかり高して 着實に働かない'.).

<표 4> 1929년 함경남도의 노동자 수

단위 : 명

부군명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계	
	토착자	왜래자	토착자	외래자	토착자	외래자	토착자	외래자
원산부	301	59	2,190	1,185	118	187	2,624	1,431
함흥군	251	870	13,480	3,351	132	588	13,863	4,809
신흥군	-	876	2,506	8,816	-	2,086	2,506	12,198
덕원군	14	1	7,575	914	6	26	7,595	941
북청군	15	39	8,492	506	3	18	8,510	563
갑산군	58	135	4,549	831	44	431	4,651	1,397
풍산군	1	-	5,267	230	-	-	5.268	230
홍원군	4	5	3,779	169	-	21	3,783	195
문천군	5	245	1,478	1,870	-	147	1,483	2,262
영흥군	5	14	3,183	429	3	22	3,191	465
안변군	5	37	1,308	1,493	-	141	1,313	1,671
이원군	12	28	1,698	1,066	-	147	1,710	1,241
정평군	2	4	2,284	235	2	35	2,298	274
단천군	7	12	1,913	261	13	14	1,933	287
장진군	2	12	1,288	929	-	52	1,290	993
삼수군	2	71	1,201	686	3	27	1,206	784
고원군	2	-	1,579	95	-	1	1,581	96
계	701	2,408	63,780	23,066	324	3,943	64,805	29,417

출전 : 朝鮮鐵道協會,『朝鮮に於ける勞動者數及其分布狀態』, 1929, pp.38～39.

<표 4>는 朝鮮鐵道協會가 1929년 함경남도 노동자 수를 민족별로 조사한 내용을 보여준다. 당시 부전강 수전 공사가 진행되었던 곳은 함경남도 신흥군이었다. 신흥군 노동자 중 조선인은 11,322명으로 전체 노동자 수의 약 77.5%, 일본인은 876명으로 약 6%, 중국인은 2,086명으로 14.2%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조선인 노동자의 경우, 해당 지역 출신의 토착 노동자에 비해 외부에서 온 노동자가 약 3.5배 정도로 전체 노동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이다. 이를 통해 부전강 개발 공사 현장에는 상당히 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중국인 노동자의 경우, 전체 노동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14.2%이지만, 외래 노동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17%이다. 즉 외래 노동자 중 5명 중 1명은 중국인 노동자에 해당하는 셈이다. 한편, 1928년에 조선총독부에서는 한 공사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1/3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85]하였는데, 이 규정은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86]

1920년대 조선의 노동 시장은 농촌에서 지속적으로 이탈되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조선인 노동자와 중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과잉 상태에 있었다. 특히 중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임금 등 여러 지표에서 국내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조선에 유입된 중국인 노동자 수는 해마다 큰 비율로 증가해 갔으며[87], 토건 노동자의 저임금에는 중국인 노동자와의 경쟁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표 5>는 1915년부터 1928년까지 중국인 노동자의 유입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5> 중국인 노동자 유입 추이(1919~1928)

단위 : 명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인원수	15,588	23,989	24,695	30,826	33,654	35,652	46,196	45,291	50,056	59,594

출전 : 南滿洲鐵道株式會社,『朝鮮人勞動者一般事情』, 1933, p.18.
비고 : 표의 인원수는 누적인원임

<표 5>는 1933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중국인 노동자 유입 상황에 대해 작성한 것이다. 중국인 노동자의 증감을 보면, 1921년에 706명, 1922년에 6,131명, 1923년에 2,828명, 1924년에 1,998명, 1925년에 10,544명, 1926년에 -905명, 1927년에 4,765명, 1928년에 9,528명으로, 1926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1920년대 들어 중국인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했던 것은 무엇보다 조선총독부가 임금이 저렴한 중국인 노동자를 선호하여 대거 고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저렴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근면하고 협조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일본인 청부업자들은 임

85) 노태정,「1920년대 재조선 중국인 노동자의 실상」,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31.
86) 도일노동자를 수전 공사장으로 모집했던 당시의 계획은 필요로 하는 6,000여 명 중에 2,500여 명을 도일 노동자로 충당하고, 함남 지방인을 1,500명, 중국인을 2,000명 정도로 생각하였다(堀內稔, 앞의 글, p.281.).
87) 노태정, 위의 논문, p.14.

금으로 지출되는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해야 했다.[88] 니시마츠구미(西松組)의 경우는 직접 중국에까지 가서 노동자 800여명을 모집하기도 하였다.[89]

부전강 수전 공사에 직접 참여했던 대표적인 청부회사인 하자마구미(間組)는 "현장 노동자 중 대다수가 중국인이며, 중국인 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저렴하며 인내력이 강한 반면, 조선인 노동자는 정착률이 극히 나쁘다"라고 하였다.[90] 또한 부전강 수전 공사에서 청부업자들은 되도록 중국인 노동자만을 쓰려고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몰려든 조선인 노동자들은 많은 수가 실업 상태에 놓이기도 하였다.[91]

청부업자들이 중국인 노동자들을 선호한 이유는 저렴한 임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직성 때문이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幇'이라는 그들만의 독특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방은 주로 동업 관계 또는 동향 관계의 의거하여 조직되었으며, 특히 조선에서는 동향 관계에 의한 조직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언어・습속이 다른 이국에서 중국인 노동자들은 방에 속함으로써 혜택을 받았다. 보통 계절 노동의 경험이 있는 '쿨리두(苦力頭)'라 불리는 두목이 수십 명의 노동자를 인솔하여 하나의 방을 조직하였다. 조선으로 온 중국인 노동자들이 바로 소속 동향 조합에 가입하기도 하고, 쿨리두가 직접 고향으로 가서 노동자들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쿨리두는 방을 대표해서 기업 단체와 노동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시 해당 기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 수 있었다.[92]

조선인 노동자에 비해 중국인 노동자의 작업 능률이 높았던 것은 중국인 노동자 조직으로는 이 쿨리두제가 널리 보급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조선인 노동자 조직으로 십장제가 발달하였지만, 이 지역은 개항장도 아니었고 한적한 작은 마을에서 갑자기 공사가 시작된 실정이었으므로 십장들이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토목 공사의 성격상 공

88) 김태웅, 『이주 노동자,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나 : 일제 강점기 중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아카넷, 2016, p.43.
89) 『조선일보』, 1929년 3월 26일, '八白의 中國勞動者 水電工場을 獨占'.
90) 間組百年史編纂委員會, 『間組百年 1899-1945』, (株)間組, 1989, p.384.
91) 『동아일보』, 1927년 5월 19일. '虛僞의 人夫募集으로 七千餘名 狼狽'.
92) 노태정, 앞의 논문, pp.15-16.

사가 끝나면 다른 공사장으로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십장제가 정착하기 어려웠다.[93] 이는 십장제가 발달했던 부산 지역과 대조적이다. 부산에서는 1921년 9월 십장들의 지도하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부산 부두 노동자 5,000여명이 파업을 전개하여 자본가의 임금 인하를 저지한 사례도 있었다.[94]

한편, 우가키의 총독이 부임하면서 조선인 노동자의 취업 알선 정책은 더욱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이때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직업소개소였다. 원래 직업소개소는 1920년대 이래 실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한 상황에서 일종의 사회사업 기관으로 운영되었으며, 조선인의 일본 도항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였다. 조선의 공업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1930년대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노동력을 공급・조절하는 기관으로 변모하였다.[95]

또한 조선총독부에서는 행정력과 언론 기관을 총동원하여 북한 지역의 취업 환경을 과대 선전하였다. “실업 시대의 별천지”, “북선시대로 도약하며, 139만 7000원의 임금, 180만인을 품고, 노동자의 명랑보”, “일약 100만원의 팽창, 총액 586만원 돌파, 대망의 개요를 발표”, “남선의 노동자를 북선에서는 대환영, 계약도 극히 유리”, “황금의 소낙비가 내리리라”등의 구호를 내건 기사가 연일 신문 지상에 실렸다.[96] 이들 선전에 의하면 노동자의 최저 임금은 하루 80전에서 1원이고, 후생시설도 완비되어 있어 일제하 조선의 농민들에게 ‘황금의 비’라도 내릴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다.[97] 그러나 노동자 모집은 쉽지 않았다. <표 6>은

93) 이러한 계절 노동의 성격은 다음의 기사에서 잘 알 수 있다.
“혹한의 선물로 언제의 근원지가 1미터 이상 두텁게 굳어 버렸으므로, 공사는 의연 중지중인 바 이에 종업하던 3천 노동자는 벌써 수개월에 달하여 실직하여 기아 선상에서 크게 곤경을 당하고 있다.”(『동아일보』, 1936년 3월 1일, ‘堤堰工事中止로 三天人夫困境’.)

94) 小林英夫, 「朝鮮總督府の勞動力政策について」, 『經濟と經濟學』 34, 東京大, 1974, pp.59～60.

95) 이상의, 앞의 책, pp.114～115.

96) 『每日新報』, 1932년 5월 24일. ‘失業時代의 別天地 咸北엔 勞動者難 土木工事와 축항 긔타 공사로 不景氣 모르는 豊盛’; 『경성일보』, 1934년 2월 20일, ‘一躍百萬圓の膨脹, 總額五百八十萬圓突破 新規施設山盛の咸南豫算’; 『경성일보』, 1934년 3월 10일, ‘南鮮の勞動者を 北鮮では大歡迎 契約も 極めて有利’; 『동아일보』, 1934년 11월 12일, ‘長津水電勞動者 七千六百名’.

97) 許粹烈, 「朝鮮人 勞動力의 强制動員의 實態」, 『日帝의 韓國 植民統治』, 1985,

1933년 당시 북한 지역 주요 공사 현장의 노동자 수를 조사한 것이다.

<표 6> 북한 지역 주요 공사의 노동자 수

단위 : 명

공사명	長津江 水電工事	赴戰江 水源工事	淸津築港 · 漁港 工事	羅津 滿鐵工事	吉惠線 鐵道工事	拓殖線 鐵道工事	圖寧線 鐵道工事	계
현재 노동자수	5,906	350	300	4,270	937	413	12,502	24,678
부족한 노동자수	656			1,067	1,000			2,723
필요예상 노동자수	8,813	1,400	1,000	8,000	3,050	433	20,000	42,696
예상부족 노동자수	3,525	420	200	2,400	915	130	6,000	13,950

출전 :「北鮮地方主要工事に於ける勞動者數調」,『朝鮮事會事業』, 12-4, 1934년 4월, p.63.

비고 : 1933년 2월 중순 현재 일일 평균 인원수임.

<표 6>은 朝鮮社會事業硏究會에서 작성한 것으로, 장진강 수전 공사 외 6곳의 공사 현장에 대해 1933년 현재 사용 노동자, 부족한 노동자, 필요 예상 노동자, 예상 부족 노동자 수를 조사하였다. 이 중 장진강 수전 공사를 살펴보면, 필요 예상 노동자는 8,813명이며 예상 부족 노동자는 3,525명이다. 이처럼 당시의 북부 지방에서는 장진강 공사 이외에도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들 공사의 대부분이 결빙기가 끝나는 4월 이후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1933년 현재 전체적으로 매일 평균 42,696명의 노동자가 필요햇으나 현재 24,678명 밖에 없었으므로, 필요 예상 노동자 13,950명을 추가로 공급받지 못한다면 공사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결국 조선총독부는 1934년 2월 「南朝鮮勞動者團體移民案」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모집전형, 수송 등에 대한 모든 것을 주관하려 했다. 종래 조선총독부 알선에 의해 이주해간 노동자들 중에서 열악한 노동 조건을 견디다 못해 많은 숫자가 탈주해 버린 사례들이 있었으므로, 이 안으로 노동

p.296.

자들의 탈주를 막으려 한 것이었다. 이 안은 조선총독부 내의 학무국과 경무국이 주관하여 만들었는데, 20명을 단위로 집단 이주시킴으로써 탈주를 막고 단결력을 강화하여 정주성을 높이려 한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1기의 이민자 수는 적어도 3,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가족을 합한 경우 약 7,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간주하였다.[98] 또한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해주기 위해 당시 하루 40전인 식비 2일분에 해당하는 80전을 최저 임금으로 할 것, 일감이 없는 겨울철에도 식비의 반액을 지급할 것, 숙사를 제공할 것, 여비는 조선총독부에서 할인해 주고 사용주측에서 부담할 것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다.[99] 그 밖에 이민한 노동자들의 경우 음식이 맞지 않아 큰 곤란을 겪고 있으므로 식모도 함께 이동하도록 주선하기도 하였다.[100]

그리하여, 학무국 사회과장이 장진강 공사 현장에 출장을 가서 관계자와 합의하였다. 그 결과 노동 조건 기타의 협정이 성립되어 우선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로부터 160여 명의 노동자를 이송하였는데[101], 부산역을 출발하여 함경남도 장진으로 수송한 경상남도 노동자가 120명이었다.[102] 1934년 여름에는 충청북도 내의 약 300여 명의 수해 이재민을 공사장에 취직시키기도 하였다.[103] 전라남도 내에서도 이미 수년전부터 북한 지역 각지로 이동하였으며, 1937년 1월 이래로 나진, 장진강 등지로 떠나간 노동자가 3,035명이었다. 1월 25일만 해도 순천에서 50명, 광양에서 48명, 구례에서 68명, 곡성에서 38명 합해 204명이 장진강 수전 공사장으로 떠났다.[104]

당시 언론과 각종 잡지에 보도된 기사를 토대로 장진강 수전에 종사한

---

98) 『경성일보』, 1934년 2월 24일, '南鮮から北鮮へ-團體移民案成る'.
99) 『경성일보』, 1934년 3월 10일, 앞의 기사.
100) 『동아일보』, 1934년 4월 14일, '今年中七大工事에 四萬勞動者需要'.
101) 『동아일보』, 1934년 4월 13일, '長津水電工事場에 三千勞動者를 移送'.
102) 『동아일보』, 1934년 4월 22일, '長津간 慶南勞動者 勞賃問題로 抗爭'.
103) 『동아일보』, 1934년 11월 22일, '三南水害農民의 北道移民失敗'.
하지만 그들 중 전부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1명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 "생활정도의 현격한 차이, 기후풍토의 상위, 노동에 대한 무경험" 등을 들고 있다.
104) 『동아일보』, 1937년 6월 25일, '長津가는 勞動群 또 二百餘名出發'.

노동자 수를 정리해 보면 <표 7>과 같다.

<표 7> 장진강 발전소 건설 노동자 수(1934년 7월)

단위 : 명

구분 / 직업별	전월 말		당월분		누계	
	세대수	인구	세대수	인구	세대수	인구
노동	822	4,388	65	644	887	5,032
상공업	221	715	11	64	232	779
음식점	210	1,012	6	28	216	1.040
기타	165	740	9	28	174	768
계	1,418	6,855	91	764	1,509	7,619

출전 : 開拓會 編, 『北鮮開拓』, 10호, 1934년 7월, p.36.

<표 8> 장진강 발전소 건설 노동자 수(1934년 10월 이후)

단위 : 명

	1934년 10월말	1934년 11월	1934년 11월 말	1934년 12월 말	1935년 2월 말	1935년 5월 말	1935년 11월 말
노동자수	8,095	7,626	7,227	6,535	6,919	11,919	5,776

출전 :「동아일보」1934년 11월 12일, 1934년 12월 16일, 1935년 2월 14일, 1935년 4월 22일, 1935년 6월 22일, 1936년 1월 18일의 기사를 토대로 재구성.

<표 7>은 『北鮮開拓』에 실려있는 것으로, 1934년 7월 말 장진강 수전 공사에는 887세대, 5,032명이 종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전월에 비해 세대수는 65세대, 인구는 644명이 증가하였다. 이어 1934년 10월 말에는 8,095명, 11에는 7,626명[105]이었다. 그리고 함경남도 경찰부의 보고에 의하면 11월 말, 현재 노동자 수는 7,227명으로 그중 일본인이 615명, 조선인이 5,480명(그 중에는 해당 지역 출신자가 778명, 외래 노동자가 4,702명), 중국인이 1,032명이었다. 이는 10월말의 8,095명에 비해 868명이 감소한 수치다. 그 이유는 공사장 일대가 결빙기에 들었으므로 堰堤 등의 표면 공사가 곤란해져 고용을 줄였던 것이다.[106] 1934년 12월 말에는

105) 『동아일보』, 1934년 11월 12일, '長津水電勞動者 七千六百名'.
106) 『동아일보』, 1934년 12월 16일, '長津水電勞動者 七千二百名'.

6,535명[107], 1935년 2월 말에는 6,919명[108]이었으며, 5월말엔 11,919명[109]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다시 언제 공사가 재개됨으로써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935년 11월 말에는 장진강 제1 발전소가 완공됨에 따라 5,776명[110]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그런데 이곳에 고용된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불과 1개월 만에 약 반수가 도망가고 6개월 만에 거의 전부가 자취를 감추는 실정이었다. 그 원인으로는 열악한 노동 현실 탓도 크지만, 조선총독부의 잘못도 컸다. 즉 조선총독부에서 이곳 공사장으로 노동자들을 알선할 때 조건과 임금에 대해 철저하게 회사나 청부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부업자들이 이들의 노동력을 헐가로 착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111]

「남조선노동자단체이민안」은 최저 임금의 설정, 중간 착취의 철폐, 질병 상해의 보장, 귀향여비의 지급, 노동자 수송시의 여비 지급 등을 내용에 포함하고 있었다.[112] 그러나 사용주측과의 구체적 협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인 최저 임금마저 점점 80전 이하로 책정되었다. 70전[113]으로 계약을 맺기도 하였으며, 결국에는 기본 식비・피복비 밖에 안되는 하루 50-60전 수준으로 인하되기에 이르면서[114] 귀환자가 속출하였다.[115]

부전강 및 장진강 발전소 공사는 매일 수천 명씩의 노동자가 필요한 대규모 공사였다. 그래서 저렴한 임금으로 노동자들을 모집하는 것은 회사의 입장에서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마침 조선에서 급증하는 도일 노동

---

107) 『동아일보』, 1935년 2월 14일, '長津水電 등 四個處가 最多'.
108) 『동아일보』, 1935년 4월 22일, '長津水電에 勞動者 最多'.
109) 『동아일보』, 1935년 6월 22일, '勞動者 萬二千名'.
110) 『동아일보』, 1936년 1월 18일, '每日使役二萬二千名에 賃金萬七千圓'.
111) 『동아일보』, 1936년 5월 16일, '長津江水電踏査記 完'.
112) 「南鮮過剩人口の北移」, 『朝鮮』 251, 1936年 4月, p.168.
그러나 장진강 제언 공사에 참여했던 韓昇冕은 이렇게 여비를 지급받은 노동자를 '借金奴隸'라고 언급하고 있다. 일에 앞서 선금을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구속당하였으며 나중에는 점점 더 증가했다고 한다.(藤鳥宇內, 앞의 글, p.18.)
113) 『동아일보』, 1934년 5월 17일, '農繁期와 救窮事業으로 勞動者가 大不足'.
114) 許粹烈, 앞의 글, p.296.
115) 『동아일보』, 1934년 5월 30일, '南朝鮮勞動者 歸還者 續出'

자의 저지 가 사회문제화되자, 조선총독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지당한 노동자를 수전 공사장으로 보냈다. 조선총독부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부산부 등 각 행정기구가 모두 협력하여 노동자를 모집하였다. 심지어는 회사와 협의하여 여비를 할인해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의치 않았으며, 이에 회사와 청부회사들은 다수의 중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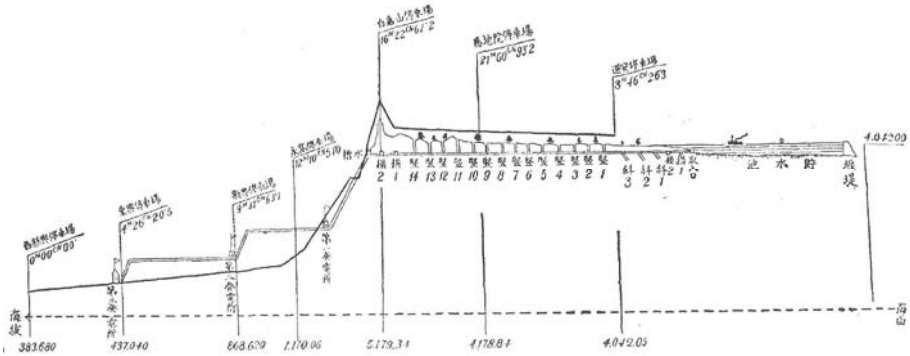
우가키 총독 부임 이후 시작된 장진강 발전소 건설 또한 마찬가지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직업소개소의 강화, 언론을 통한 홍보 증대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지만 노동력 부족 현상은 여전하였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1934년 2월 「남조선노동자단체이민안」을 만들어 부전강 개발 때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노동자를 모집하였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와 회사 간에 임금 등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모집된 노동자들 중 다수가 다시 돌아가 버렸다.

4. 赴戰江・長津江 발전소 건설 현장의 노동 여건과 노동자 통제

1) 발전소 건설 현장의 실상

부전강 개발 공사는 해발 고도 1,200미터의 고원 지대에 약 80㎢의 대규모 저수지와 동해로 통하는 약 27㎞의 터널, 그리고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게다가 터널에는 총중량 약 12,000톤의 수압철관을 부설해야 했다. 여기에 재료 운반을 위한 철도, 인클라인(incline)[116], 케이블카 부설 등의 부가 시설까지 합치면 엄청난 대공사였다.[117] 부전강 발전소의 단면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부전강 발전소 단면도



출전 : 藤本梅良 編,『(赴戰嶺水電工事)新興の咸南』, 新興の咸南社, 1929, p.10.

116) 철도는 선로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레일과 바퀴 사이의 粘着力에 의해 달리는 일반 철도로는 운전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른 곳을 오르기 위해서 강삭철도가 사용된다. 강삭철도는 보통 두레박식(교주식)의 운전방식을 사용하며, 마치 우물의 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처럼 산마루에 있는 역에 설치된 드럼에 감은 케이블의 양쪽 끝에 1대씩의 차량을 달고, 드럼을 전동기에 의해 회전하는 것으로, 궤도는 중앙부의 차량이 교차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선으로 되어 있다.

117) 久保田豊,「赴戰江水力發展工事の話」,『朝鮮鐵道協會會誌』7-3, 1928.

부전강 발전소는 유역 변경식 발전소이기 때문에 저수지의 물을 발전소까지 끌어 오기 위해 부전강 약 27km, 장진강 약 23km의 수로를 뚫어야 했다. 위의 <그림 1>에서 보자면 오른편이 저수지가 있는 함경산맥 부근이고, 왼편이 동해안 방향이다. 수로가 길기 때문에 수로를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 여러 청부업자들이 이를 담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각 청부업자들은 사람이나 자재를 반출입하기 위해 가로[橫坑]나 비스듬히[斜坑], 혹은 수직으로[竪坑] 굴을 뚫어야만 했다.[118] 그래서 위 그림을 보면, 오른쪽부터 저수지, 取入口, 제1橫坑, 제2橫坑, 제1斜坑, 제2斜坑, 제3斜坑, 제1竪坑, 제2竪坑, 제3竪坑, 제4竪坑, 제5竪坑, 제6竪坑, 제7竪坑, 제8竪坑, 제9竪坑, 제10竪坑, 제11竪坑, 제12竪坑, 제13竪坑, 제14竪坑, 끝부분에 다시 제1橫坑, 제2橫坑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청부업자인 마츠모토구미(松本組)가 取入口부터 제4竪坑까지, 나가토구미(長門組)가 제5竪坑부터 제11竪坑까지, 니시마츠구미(西松組)가 제12竪坑부터 제14竪坑까지, 하자마구미(間組)가 나머지 제1橫坑, 제2橫坑을 담당하였다.[119]

노구치는 '노동자는 牛馬라고 생각한다'라고 외치며 막무가내식으로 부전강을 개발하였다.[120] 어떤 토목 공사이든 본 공사에 앞서, 토지 매수・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철도 건설・제언 공사・전기 시설 등 준비 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수력 발전소 건설과 같은 대형 토목공사의 경우 준비 공사의 성공 여부가 본 공사의 성공 여부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부전강 및 장진강 수전 개발 공사는 준비공사와 본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121]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곤란한 상황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 마침내 양수 펌프용 전력이 부족해, 昭和 4년(1929) 공사용으로 신설된 2,000kw의 영고 화력 발전소가 과부하로 소실되어 버린 사고가 일어났다. 긴급 대책으로 상류측의 수도 공사를 전면적으로 중지하여 수도를 중간에 폐쇄하였다. 그리하여 중간지점에서

118) 尹明憲, 앞의 글, p.149 참조.
119) 藤本梅良 編,『(赴戰嶺水電工事)新興の咸南』, p.12.
120) 藤鳥宇內, 앞의 글, p.18.
121) 由佐秀雄, 앞의글, p.37.

부근 하천으로부터 물을 끌어와 본발전소를 가운전하여 절박한 고비를 참고 견뎠다. 이 사이 전력 절약을 위해 양수 펌프 이외에는 인크라인도 정지하고, 공사현장으로의 송전도 정지하여 사무소나 숙소는 완전히 **원시적인 램프 생활**을 하였다.[122]

위 자료는 하자마구미가 수로 작업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3~27km 되는 수로 공사장에서는 곳곳에서 나오는 용수 때문에 공사가 매우 힘들게 진행되었음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상황은 그러한 용수를 제거하기 위해 설치한 양수 펌프의 과도 사용으로 전력이 부족해졌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전력 보급을 위해 이제 막 완공된 발전소를 가운전하여 펌프에 전력을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 다른 모든 시설을 정지하였다. 회사에서 제대로 준비공사를 마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위와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 돌아갔다. "숙소는 완전히 원시적인 램프 생활"을 하였다는 내용을 볼 때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했는지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수로 안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는 다음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다.

갱내는 완전히 소나기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이 무시무시한 현장에서 움직이는 종업원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현장을 보지 않은 사람에게 알릴 도리가 없었다. 종업원은 우비를 입고 고무장화를 신고 잠수부와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2시간도 갱내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우비는 말할 것도 없고, 재킷, 셔츠도 흠뻑 젖게 되버린다. 그들은 우비를 벗고 떨면서 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 실로 딱해 보였다. 그래도 입술을 움직이면서 갱내의 일에 대해 속삭임에 여념이 없었다.[123]

위 글은 실제 부전강 공사 현장을 답사한 후 『(赴戰嶺水電工事)新興の咸南』라는 책을 편찬한 후지모토 보이료우(藤本梅良)라는 인물이 수로를 직접 살펴본 후 쓴 것이다. 곳곳에서 뿜어나오는 용수가 마치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노동자들은 '잠수부'처럼 작업복을 입고 작업을 하였다. 하지만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온몸이 흠뻑 젖어 추위에 떠는 노동자들의 힘든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 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수로

122) 間組百年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p.382.
123) 藤本梅良 編, 앞의 책, p.11.

작업의 가장 난점 중의 하나가 바로 용수 제거 문제였다.

그리고 이 지역은 겨울이면 영하 40도를 오르내린다. 앞서 언급했듯이, 11월이면 공사장 일대가 결빙기에 들어 언제 등 표면 공사가 곤란해지므로 보통 5월 쯤에 가서야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다. 하지만, 회사는 최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매우 급속도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부전강, 장진강에 건설된 각 발전소별 건설 기간을 살펴보면, 정리해 보면 <표 9>, <표 10>과 같다.

<표 9> 부전강 발전소 건설 현황

발전소	출력	수로	철관로	착공/준공
제1발전소	129,600kw	26,580m	2,833m	1926/1930
제2발전소	41,400kw	5,800m	473m	1929/1930
제3발전소	18,000kw	6,175m	205m	1929/1930
제4발전소	11,700kw	7,415m	30m	1932/1932

출전 : 日本公營株式會社,「赴戰江發電工事の記錄」,『日本窒素史への證言』, 續劵第七集, 1990, p.6.

<표 10> 장진강 발전소 건설 현황

발전소	출력	착공/준공
제1발전소	144,000kw	1933.10/1935.11
제2발전소	106,300kw	1935.10/1936.11
제3발전소	42,000kw	1936년 /1937년 말
제4발전소	34,200kw	1937년/1938년

출전 : 尹明憲,「朝窒による電源開發」,『朝鮮における日窒コンツェルン』, 不二出版株式會社, 1985를 토대로 재구성함.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전강 발전소는 제1발전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1년 여 만에 건설되었다. 장진강 발전소도 마찬가지로 제1 발전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의 발전소가 1년 이내에 건설되었다(<표 10>).

1923년에 건설된 부전강 제4 발전소의 경우는 9개월만에 완성되었는데, 이는 당시 발전소가 직면한 경제적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부전강 제1, 2, 3 발전소는 旱魃 등으로 인해 계획대로 출력량이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시가가 저렴한 塗色硫安(赤安)의 속출, 외국 유안의 덤핑가

등으로 인해 1932년은 최악의 상태였다. 그런데 이때 구보타는 오히려 대공황으로 인해 야기된 불황을 역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불황기엔 공사비가 통상 60~70% 정도였으며, 이 또한 후불이 가능하였다. 이에 노구치는 미쓰비시 은행으로부터 확장 공사 금지를 통고받았음에도, 개인 자금을 투자하여 제4 발전소를 건설하였으며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약 9개월만에 완성하였다.[124]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노동자들이 매일 12시간씩 2교대로 "밤새도록" 근무하였기 때문이다.[125] 하지만 공사가 급속도로 진행되다 보니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다음 <표 11>과 <표12>는 부전강 및 장진강 발전소 건설 당시 발생한 사고 중 橫坑, 斜坑 및 竪坑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골라 정리한 것이다.

<표 11> 부전강 개발 공사 사고 현황

발생일시	장소	사상자수	사고원인 및 내용	출전
1927. 5.28 오전 1시	신흥군 西松組 관할 제12 竪坑	2명 사망 2명 사상	다이나마이트 폭발	『동아일보』 1927년 06월 03일
1927. 12.14 오후 3시	長門組 관할 제5 竪坑	12명 사망	- 다이나마이트 폭발 - 내지인3명,조선인3명,중국인6명	『경성일보』 1927년 12월 18일
1928. 1.6 오후 7시		중경상자 8인	뇌관이 폭발	『조선일보』 1928년 01월 10일

<표 12> 장진강 개발 공사 사고 현황 ①

발생일시	장소	사상자수	사고원인 및 내용	출전
1933. 1.11 오후 8시	함주군 하기천면 진흥리 수로 제9 斜口構內	2명 사망 6명 입원	- 인부 8명이 질주하는 "도로차"에 부딪힘 - 회사측과 지주측이 타협을 보지 않은 가운데 공사를 강행하다가 일어남	『동아일보』 1933년 11월 16일
1934. 2.12 오후 4시	중남면 장흥동 제2竪坑	1명 사망 1명 중상	竪坑이 무너짐	『동아일보』 1934년 02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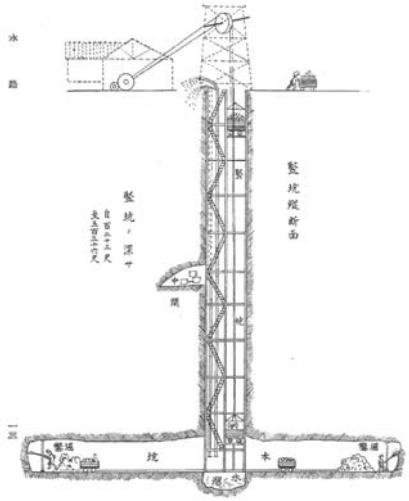
124) 金旱雪, 앞의 글, pp.97-98.

125) 開拓會 編,『北鮮開拓』, 1934년 7월, p. 35;『동아일보』, 1936년 5월 31일, '每日十二時間式 晝夜로 交代勞動'.
대략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가 한 조,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가 한 조였다(『동아일보』, 1936년 6월 2일, '生死를 運命에 마끼고 晝夜不分의 勞動'.).

1934. 4.15 오후 10시 반	장진군 신남면 고토리 間組 제6 斜坑 井迫工場	1명 즉사 5명 중상	다이너마이트가 폭발	『동아일보』 1934년 04월 24일
1934. 10.28 오전 8시	신남면 고토리 제7 斜坑	2명 중상	- 다이너마이트가 폭발 -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이 8명, 중경상자가 38명임	『동아일보』 1934년 11월 09일
1934. 11.2	장진군 신남면 재원리 제8 斜坑	4명 중상	- 남포 폭발 - 19회의 사고. 7명의 사망자와 34명의 부상자	『동아일보』 1934년 11월 12일
1934. 11.19 오후 7시	신남면 송정리 靑木丁場	1명 사망	밀구루마를 밀고 가다가 竪坑에 빠짐	『동아일보』 1934년 11월 23일
1934. 11.21 오전 8시 15분	장진군 신남면 고토리 제7 斜坑	2명 중상	- 다이너마이트가 폭발 - 사고발생 21회, 사망자 8명, 부상자 38명	『조선일보』 1934년 11월 29일
1934. 11.25 오전 9시	신남면 하갈우리 前原丁場 제2 斜坑	1명 사망	- 암석이 무너짐 - 사고발생이 22회, 사망이 15명, 부상이19명	『동아일보』 1934년 11월 30일
1934. 11.29 오전 7시	신남면 재원리 제8 斜坑 松久丁場	1명 사망	- 교대 시간에 “도로꼬”에 앉어 굴속에서 나오다가 돌맹이에 머리가 부딪힘 - 여기서 인명 사상이 50여명에 이름	『동아일보』 1934년 12월 07일
1934. 11.10 오후 1시 30분	장진군 신남면 송정리 제4 竪坑	1명 사망	- 게지를 타고 굴밖으로 나오다가 천정에 부딪힘 - 동공사장서 희생된 사람만도 20여명임	『동아일보』 1934년 12월 18일
1934. 11.20 오전 8시 30분	신남면 도내리 제3 竪坑	1명 사망	- 게지를 타고 굴속으로 들어가던 인부가 게지에서 뛰어내리다가 게지에 깔림 - 동공사장에서 사고 발생건수가 20여회	『동아일보』 1934년 12월 28일
1935. 1.18	신남면 하갈우리 제2 竪坑	1명 사망	- 작업을 하다가 흙이 떨어짐 - 동공사장에서 사고 발생 27회, 사망 21명, 중경상 20명	『동아일보』 1935년 01월 25일
1935. 3.3 오후10시	장진군 신남면 송정리 제4 竪坑	4명 사망	- 정지하지 않은 게지에서 내리다가 상반신이 게지에 끼임 - 사고발생 30회, 사망자가 이미 25명, 부상자가 21명	『동아일보』 1935년 03월 11일
1935. 3.2 오후10시	장진군 신남면 재원리 제5 竪坑	1명 사망	- 다이너마이트에 폭발된 석괴파편이 인부의 후면배후에 명중함 - 사고발생 26회, 사망자 9명, 중경상자45명	『동아일보』 1935년 03월 13일
1935. 3.5 오후10시	제4 竪坑	1명 중상	- 게지를 타고 가다가 잘못 뛰어내려, 게지에 가슴이 눌림 - 취업 준비 중 발생 - 사고발생 누계 30회, 사망자 27명, 부상자 21명	『동아일보』 1935년 03월 13일
1935. 3.21 오후 9시	장진군 신남면 도내리 제3 竪坑	2명 중상	- 타고 있던 게지가 갑자기 갱밑으로 떨어짐 - 일본인 1명, 중국인 1명, 사고 37회, 70여명의 노동자 사상	『조선일보』 1935년 04월 26일

<표 11>과 <표 12>를 살펴 보면 사고 발생 장소 竪坑, 斜坑, 橫坑이 많다. 이밖에 “수도”, “갱내”, “터널”, “굴속”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이는 유역 변경식 발전소 건설로 인한 터널 작업 속에서 발생한 것들이다. 竪坑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이유는 竪坑의 구조 때문이었다. 竪坑의 단면도를 보면 그 구조적 위험성을 알 수 있다.(<그림 2>)

<그림 2> 竪坑의 단면도



출전 : 藤本梅良 編,『(赴戰嶺水電工事)新興の咸南』, 新興の咸南社, 1929, p.13.

그림처럼 터널로 사람이나 자재를 반출입하기 위해 수직으로 굴을 뚫은 것을 竪坑이라 하는데, 깊이는 대략 123척(약 37m)에서 536척(약 162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이 竪坑을 오르내리는 승강기를 “게지(cage)”라 불렀다. 수직으로 굴을 뚫어야 했기 때문에 굴 또는 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게지와 관련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수로 및 橫坑, 斜坑, 竪坑의 굴착 작업을 위해서는 다이너마이트를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표 13>은 장진강 개발 공사 당시 발생한 사고 중 다이너마이트 관련 사고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골라 정리한 것이다.

<표 13> 장진강 개발 공사 사고 현황 ②

발생일시	장소	사상자수	사고원인 및 내용	출전
1933. 12.1 오전 11시30분	함주군 하기천면 하대리 제1 발전소	2명 중상	다이너마이트에 뇌관을 설치하여 땅 위에 놓아둔 것이 폭발	『동아일보』 1933년 12월 04일
1934. 3.9 오후 5시 30분	장진군 신남면 부성리 松本組 공사장	1명 즉사 3명 중상	- 갑자기 다이너마이트가 폭발 - 노동자 1명은 일본인	『동아일보』 1934년 03월 12일
1934. 6.25 오후 2시	장진군 신남면 하갈우리 前原丁場	유아 3명 중상	아이들이 남포를 가지고 놀다가 남포가 폭발	『동아일보』 1934년 07월 30일
1934. 8.27 오후 1시	장진군 신남면 부성리 제4 갱내	2명 즉사	- 다이너마이트 폭발 - 일본인 1명, 중국인 1명	『조선일보』 1934년 09월 05일
1934. 10.20 오전 8시	함주군 하기천면 진흥리	2명 즉사 1명 중상	- 아이들이 미폭발의 다이너마이트를 굴리면서 놀다가 화를 입음 - 반년에 30여 건의 인명사고 발생	『조선일보』 1934년 10월 25일
1934. 10.28 오전 8시	신남면 고토리 제7 斜坑	2명 중상	- 다이너마이트가 폭발 -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이 8명, 중경상자가 38명임	『동아일보』 1934년 11월 09일
1934. 11.2	장진군 신남면 재원리 제8 斜坑	4명 중상	- 남포 폭발 - 19회의 사고. 7명의 사망자와 34명의 부상자	『동아일보』 1934년 11월 12일
1935. 3.2 오후10시	장진군 신남면 재원리 제5 竪坑	1명 사망	- 다이너마이트에 폭발된 석괴 파편이 인부의 후면배후에 명중함 - 사고발생 26회, 사망자 9명, 중경상자45명	『동아일보』 1935년 03월 13일
1935. 3.29 오후 3시 40분	신남면 부성리 제4 斜坑 松本組 田中丁場	2명 즉사 1명 중상	최초에 6개의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키고, 차후 20개의 다이너마이트에 점화했으나 미처 피난하기 전에 폭발함	『조선일보』 1935년 04월 03일
1935. 6.11 오후 4시 30분	장진군 신남면 하갈우리	1명 부상	- 공사장에서 버린 뇌관을 발견하여 가지고 놀다가 폭발함 - 10세 아동	『동아일보』 1935년 06월 16일
1936.5.6. 오후 9시 반	함주군 하기천면 진흥리 사동 제2호 隧道	1명 사망 2명 중상	불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함	『조선일보』 1936년 05월 09일
1936. 6.26 오후 1시	하기천면 진흥리 제4 터널 입구 제2 발전소	1명 즉사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던 찰나에 파편이 흉부를 때림	『동아일보』 1936년 07월 02일
1937. 10.4 오전 5시	함주군 하기천면 상도리 제4 발전소 松本組 田中丁場	2명 즉사 1명 중상	발파 작업 중 안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가 미리 나오지 못함	『조선일보』 1937년 10월 11일
1937. 10.25 오후 8시	함주군 하기천면 상통리 제3수로 松本組	1명 즉사 2명 중상	발파 작업을 하던중 갱내에서 미처 피하지 못한 노동자가 파석에 맞음	『조선일보』 1937년 10월 28일

<표 13>을 보면 장진강 개발 공사 당시 斜坑 및 竪坑에서 다이너마이트나 남포 폭발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함경남도 도내 각지에서 1933년 1년간의 화약·폭약·도화선 등 화약류의 사용은 격증하여 그 총금액만 94만 6325원 1전으로, 그 중 장진강 수전의 사용량이 제일 많았다고 한다.[126]

한편, 사고 시간대별로 정리해 보면, 1교대(오전 9시~오후 7시)가 49회, 2교대(오후 8시~오전 7시)가 36회이다. 여기에 교대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에 7건, 오후 7시 40분 경에 1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시간을 알 수 없는 것이 17건이다. 사고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회사나 청부업자 측에서는 이를 모두 조선인 노동자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다음 자료에는 이러한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 대저 수갱에서는 6, 7개 내지 10개의 구멍을 내서 거기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전기로 발파를 하였다. 전기 발파는 일제히 폭파하기 때문에, 완전히 발파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수갱에서는 장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폭파한 쓰레기는 원래의 곳에 떨어뜨리므로 특히나 위험이 더하다. 내지의 광산 방면에 경험있는 갱부라면 실패가 적겠지만, **日淺한 조선인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곡괭이를 휘두르다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127]

> 이러한 다수의 **미숙련 노동자**를 주력으로, 규모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당시 유례가 없는 거대 공사를 시공했기 때문에, 사고도 많았다. 가장 특징적인 사고는 다이너마이트 폭파 사고였다. 영하 35도의 혹한기에는 다이너마이트도 얼어버리기 때문에, 화약에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그것을 난로나 전기 히터에 녹이다가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또한 전기 발파 후의 굴삭 작업중에 불발된 언 다이나마이트가 드릴에 먼저 닿아 폭발한 사고도 있었다.[128]

첫 번째 글은 앞서 언급한 후지모토의 주장이다. 두 번째 글은 부전강 및 장진강 개발 공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청부업자인 하자마구미(間組)가 기록한 것이다. 위 기록에서처럼, 회사는 다이너마이트 사고의

---

126) 『동아일보』, 1935년 2월 24일, '火藥消費高 九十四萬圓'.
127) 藤本梅良 編, 앞의 책, p.14.
128) 間組百年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p.384.

원인을 “일천한 조선인”이나 “미숙련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회사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난으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갈을 줍는 부인들이 작업하던 중에 아이들이 남포를 가지고 놀다가 일어난 사고, 아이들이 폐적물을 적치한 곳에서 놀다가 미폭발의 다이너마이트를 굴리면서 놀다가 화를 입은 사고, 인부가 작업 중 불발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여 중상을 입은 사고, 다이너마이트에 점화했는데 미처 피난하기 전에 폭발한 일, 240미터 가량 되는 지점에서 발화하려고 불을 붙인 채 안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가 미리 나오지 못하여 2명이 즉사한 일, 발파작업을 하던 중 갱내에서 미처 피하지 못한 3명의 노동자가 파석에 맞아 1명이 즉사”한 사고 기사를 보면, 노동자의 실수라기 보다는 회사측의 관리 소홀이나 안전 관리 미미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129]

이렇게 빈번히 사고가 발생하자, 함남 신흥군의 공사 담당 청부업자는 신흥군수, 신흥 경찰 서장 입회 하에 노동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에 대한 구제방법 개선안을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작업중 경미한 부상을 당한 경우는 1회 상당액의 구제금 지급
> 부상, 질병, 입원중에는 실비로 1일 40전 씩의 식비 지급
> 치료 후 다시는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 100일분 이상 지급
>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70일분 지급
> 이전과 같이 노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30일분을 일시에 지급
> 사망자의 유족에는 100일분 이상의 임금을 부조
> 장례비는 40일분 이상을 지급[130]

그러나 이 구제안은 공사발주자인 일본질소가 직접 개입하지 않은 채, 청부업자 측이 군수와 경찰 서장 입회하에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데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다[131]. 게다가 토건 노동자가 중식을 먹으려고 게

---

129) 『동아일보』, 1934년 7월 30일, ‘爆藥暴發로 三乳兒重傷’; 『조선일보』, 1934년 10월 25일, ‘다이나마이트 犧牲 半個年에 三十餘件’; 『동아일보』 1935년 9월 27일, ‘다이나마이트 暴發로 人夫三名重傷’; 『동아일보』 1935년 4월 26일, ‘水電工事 또 二名重傷’, 『조선일보』; 1937년 10월 11일, ‘勞動者 三名死傷, 長津江水電工事場慘事’; 『조선일보』, 1937년 10월 28일, ‘長津江水電工事場에서 人夫三名 또 死傷’.

130) 『京城日報』, 1927년 6월 1일, ‘勞動者救濟協議案’.

지를 타고 나오다가 천정에 부딪혀 중상을 입었는데 회사측에서는 “게지를 타고 왕래함은 위험하니 타지 말라고 주의를 시켰음에도 그렇게 되었으니 책임이 없다”라고 발뺌하거나[132], 일을 하다가 실수로 기계에 다리를 다치어 불구가 된 노동자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살을 시도한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자에 대한 보상금 지불이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133] 또, “갱내 작업을 하던 인부 1명이 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암석에 치여 즉사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임금 130원을 내어 놓고 매장과 위자료를 해결하고자 하여 아버지가 이를 매장비로만 받고 위자료는 협의중”이라는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급하더라도 아주 적은 액수만 지급했음을 알 수 있다.[134] 그리고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면, 회사는 업무를 중지하여야만 했다. 하지만 회사는 회사 부속병원을 통해 교묘히 업무 중지를 회피하였다.

> 작업장에서 사고가 나서 즉사자가 나오게 되면 업무정지를 당하게 되어, 사내에서 수습하기 위해 부속병원으로 보낸다. 작업장 내에서는 살아있더라도, 병원측에서는 (회사에) **아첨을 떨기 때문에** 죽게 되버린다. 그러면 업무정지를 받지 않게 된다.[135]

위 자료는 흥남 조선질소 本宮공장의 운송부에서 근무했던 야마시타 이와오(山下岩夫)의 증언이다. 위 증언에 따르면 사고 발생 즉시 부속 병원으로 이송하여 이를 처리한다. 하지만, 부속 병원의 의사들 또한 이 회사 소속이다. 그래서 회사는 병원측과의 암묵적인 협의 하에 사고를 회사측의 과실보다는 사고 당사자의 부주의로 처리했으며, 현장에서 사망

---

131) 松岡信夫, 「朝鮮窒素肥料會社の体質と行動」, 『自主講座』 第17号, 1972, p.34.
132) 『동아일보』, 1935년 5월 21일, ‘長津江水電工事 人夫一名卽死’.
133) 『동아일보』, 1937년 7월 28일, ‘生活苦의 反映 黃州에 自殺二重奏’.
134) 『조선일보』, 1935년 5월 8일, ‘魔의 長津水電 二八少年又慘死’.
135) 山下岩夫 구술, 田中重好 정리, 「朝鮮窒素での勤務體驗を聞く」, 『自主講座』 第23號, 1973, p.21. 실제 부속병원에 관한 기사는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조선일보』, 1930년 8월 10일, ‘危險作業强制로 식혀 人夫墜落重傷’. 이 기사에서는 이 부속병원이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알 수 있다. 인부 1명이 기계를 수선하다 기계와 함께 떨어져서 부속병원으로 가서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죽었으니 매장하라고 해서 관을 짜는 와중에 죽은 줄 알았던 인부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이외에 『조선일보』, 1929년 8월 25일, ‘朝鮮水電에서 轢殺事件頻出’ 참조).

한 것이 아니므로 작업 정지를 피할 수 있었다.

부전강 및 장진강 발전소는 유역 변경식으로 건설되었다. 그래서 압록강 쪽으로 흐르는 부전강 및 장진강을 막아 제언을 만들어야 하며, 저수지의 물을 동해안 쪽으로 흐르도록 수로를 뚫어야 했다. 또 발전소를 건설해야 했으며, 이러한 본공사를 위해 철도 부설 등 사전 공사도 해야 했다.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공사였다. 한겨울엔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를 견뎌야 했으며,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공사 기간도 단축시켜야 했다. 그러다보니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사 기간 내내 사고가 끊이질 않았으며, 심지어는 사망신고서 수만 장을 미리 인쇄해 두기도 하였다.[136] 노동자 피해 구제안이 마련되긴 했지만, 회사나 청부업자 측은 이를 노동자의 부주의 탓으로 돌려 그 책임을 회피하였다.

2) 청부업자의 노동자 통제 및 노동자들의 대응

일제하 조선에서 수력 전기 공사, 수리조합 공사, 도로・항만 공사 등의 토목 공사는 일반적으로 구미(組)라고 불리는 토목공사 청부업자들에게 맡겨졌다. 부전강과 장진강 발전소 건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필요한 만큼의 노동자들을 모집하여 공사를 수행해 나갔다.[137] 공사에 종사한 노동자는 대부분 단순 육체 노동자였으며,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가 공사의 성공여부의 관건이었다.[138] 이에 조선총독부나 일본질소같은 대기업은 대부분이 공사를 경험이 풍부한 청부업자들에게 맡겨 노동자 모집과 관리를 맡겼다.[139]

이는 1928년 7월 13일부터 9월 24일 사이에 조선철도협회 산하 철도관계업무조사위원회의 위촉에 의해 조선토목건축협회가 실시한 토건노동자 실태조사서인 『朝鮮工事用各種勞働者實狀調(이하 실상조)』를 살펴봐도

136) 박경식 저, 박경옥 역,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 고즈윈, 2008, p.279.
137) 姜萬吉, 「공사장 막일꾼의 생활」, 『日帝時代 貧民生活史 硏究』, 1987, p.294.
138) 김영근, 「1920년대 노동자의 존재형태에 관한 연구 : 토목・건축 노동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p.46.
139) 도리우미 유타카, 앞의 논문, 2013 참조.

알 수 있다.[140] 이 중에서 조선질소와 관련된 朝窒西湖防波堤工事場은 나가토구미(長門組)에서, 朝窒西湖津舍宅新築工事場은 니시마츠구미(西松組)에서 담당하였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부전강 및 장진강 개발에서 가장 난공사 중 하나였던 수로 공사는, 마츠모토구미(松本組)・나가토구미(長門組)・니시마츠구미(西松組), 하자마구미(間組)에서 나눠 맡아 시공하였다. 발전소나 공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나가토구미(長門組)는 경성에 본점을, 만주와 조선에 지점 및 출장소를 두고 사업을 하였다. 마츠모토구미(松本組)는 본점을 쿠레(吳)에 두고, 일본은 물론 만주와 조선에서 사업을 전개하였다. 니시마츠구미(西松組)는 교토(京都)에 본점을 두었으며, 구마모토(熊本)에 지점을 설치하여 큐슈 지방의 공사에 거의 독점적으로 관여하여 명성을 얻었다. 이후 조선으로 진출하여, 부전강 공사에서는 제언공사를 마무리하였다. 하자마구미(間組)는 도쿄에 본점을 두었는데, 일본보다는 만주와 조선에서 두드러지게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부전강 공사에서는 터널의 일부인 서지탱크(surge tank, 수력발전소의 조정수탑), 鐵管路, 제1발전소 및 기타 한대리 제언공사 전의 건축물 등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약하였다.[141] 이들은 조선으로 진출하기 이전부터 이미 노구치와 관련이 있었다. 마츠모토구미(松本組)는 일본질소가 1925년에 발주했던 하나하지(一ツ瀨川) 발전소 수로공사를 114만 2,000엔에 청부받아 노구치로부터 신용을 획득했으며,[142] 다시로 강(田代川) 발전소 건설에서 이미 두각을 드러냈던 하자마구미(間組)는 모리타 가즈오가 부전강 현지 조사를 위해 조선을 방문했을 때 이 회사의 경성지점에서 필수품 지급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였

140) 漢江堤坊工事場, 安寧水利工事場 등 전국 37개의 작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는 미숙련노동자의 대표적인 병인부(보통 인부)로부터 숙련노동자인 기계 운전공 그리고 십장에 이르기까지 총 39개 직종 종사자 6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朝鮮土木建築協會 編, 『朝鮮工事用各種勞動者實狀調』, 京城: 朝鮮土木建築協會, 1928 참조). 그러나 조선질소와 관련된 작업장으로는 朝窒西湖防波堤工事場, 朝窒西湖津舍宅新築工事場 2곳 밖에 없다. 1928년이면 부전강 개발공사 중 가장 위험했던 터널 공사(1929년 4월 완공)와 제1발전소(1929년 11월 완공)가 거의 완공 직전에 있었다.

141) 藤本梅良 編, 앞의 책, pp.16～34.

142) 西松建設株式會社 編, 『西松建設創業百年史』, 1978, p.55.

다.[143] 수로 공사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의 수를 청부업자별로 정리해 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부전강 坑別 노동자 수

단위 : 명

組	坑 및 종업원 수
松本組	取入口 : ?, 제1橫坑 ; 230, 제2橫坑 ; ?, 제1斜坑 ; 250, 제2斜坑 ; 205, 제3斜坑 ; 250, 제1竪坑 ; 230, 제2竪坑 ; 300, 제3竪坑 ; 290, 제4竪坑 ; 300
長門組	제5竪坑 ; 323, 제6竪坑 ; 300, 제7, 8, 9, 10, 11竪坑 ; ?
西松組	제12竪坑 ; ?, 제13竪坑 ; 350, 제14竪坑 ; 450
間組	제1橫坑 ; 240, 제2橫坑 ; 300

출전 : 藤本敏良 編,『新興の咸南:赴戰岑水電工事』, 咸興社, 1929 를 토대로 재구성.

<표 14>를 보면, 실제 인원이 확인된 것만 해도 4천 여 명에 달한다. 그래서 이들 청부업자들은 '配下', '親方'[144] 등 으로 불리는 중간 감독자를 두고 노동자들을 관리하였다. 노동자들은 청부업자와 직접 관계를 맺기 보다는 항상 중간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공사에 종사하였다. 다음의 『동아일보』 기사에는 이러한 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 니시마츠구미(西松組) 配下 신 인부가 무리하게 防水林을 벌목하며 제언을 파굴하므로 이장 한진혁이 공사주임 신에게 어떠한 이유로 무리하게 파굴하냐고 질문한즉, 우리는 토지 수용령을 받아가지고 일을 한다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령을 적용한다고 쓰인 종이 조각을 들이대며 한진혁을 위협 구타하므로, 이를 본 지주측 군중과 회사측 인부 사이에 일대 격투가 일으나므로 인부 측에서는 공사용 톱칼을 가지고 함부로 대항하게 되어 수많은 중경상자를 내었더라.[145]

니시마츠구미(西松組) 배하 신 인부가 수용령이 적용된 토지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자, 지주측과 충돌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143) 間組百年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pp.377~378.
144) 土木工業協會, 電力建設業協會 編,『日本土木建設業史』, 技報堂, 1971, p.311.
145)『동아일보』, 1933년 11월 2일, '地主側과 會社人夫間 畢竟正面으로 衝突'.

공사를 강행한 신 인부를 “공사주임”으로 표현한 것에서 신 인부가 중간 관리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사주임은 대부분이 일본인이었지만, 조선인도 있었다.[146]

노동자들은 개인적으로 수전회사에 취업할 수 없고, 항상 청부업자를 통해야 했다. 이때 일을 하면 소개료 비슷한 구실로 갑종 노동자는 매일 임금의 1할, 을종 노동자는 매일 임금의 2할 내지 3할을 소속 구미에 바쳐야 했다.[147] 갑종은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노동자를, 을종은 미숙련 노동자를 일컫는데 갑종 노동자 또한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다음의 『조선일보』 기사는 이러한 갑종 노동자의 상황 변화를 보도하고 있다.

> 신흥군 동상면에서 공사중인 조선수전회의 ‘가솔린’ 운전수와 조수가 파업하였다 함은 본보에 이미 보도한 바이며, 또 그 회사의 갑종인부(기술노동자) 360명이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바 내용인즉, 이전에는 갑종인부의 물품공급은 그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던 것을 청부업자 共榮社에 공급권을 넘기자 재래의 물건보다 2할 이상의 폭리를 취하며 횡포가 날로 심하므로 그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라는 바.[148]

위 기사에 따르면, 이전에는 갑종인부의 물품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청부업자가 대신 공급하였다. 이로 인해 2할 이상의 이자가 붙자, 노동자들이 항의하고 있는 상황을이 보도되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을종 노동자는 이미 이자를 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전강 및 장진강 발전소 공사 현장의 노동자들은 공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마저도 청부업자들에게 중간 착취를 당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청부업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처우 등에 있어서 극히 열악한 상태에 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토목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될 수 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경쟁 입찰 제도 때문이었다. 공사의 총본부에 해당하는 회사가 단가를 낮추기 위해 청부업자 간에 입찰 경쟁을 시켰으며, 이로 인해 공사의 비용이 낮아졌다. 게다가 앞에서

146) 『동아일보』, 1934년 5월 6일, ‘勞賃引上要求 五十餘工盟休’.
147) 『조선일보』, 1929년 6월 8일, ‘人夫의 汗血을 各組에서 搾取’.
148) 『조선일보』, 1929년 7월 6일, ‘朝鮮水電會社 甲種人夫動搖’.

언급한 것처럼 소개료나 물품 지급 등에서 청부업자 및 배하가 중간 이윤을 취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욱 낮아지게 되었다.[149]

청부업자들은 노동자들을 물샐 틈 없이 감시하였다. 초창기 교통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말을 타고 마치 "군대의 중대장"처럼 감시하기도 하였다.[150] 심지어는 용수가 뿜어나오는 수로에서 침구를 가져다 놓고 공사를 감독하기도 하였다.[151] 각 구미의 감독원들은 혹시나 실수가 있을까 우려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혹한과 싸워가며 휴대용 석유등을 들고 돌가루 투성이가 된 채 감독하였다.[152]

일본인 감독에게 조선인 노동자들이 구타당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부전강 제4 발전소 공사장에서는 일하고 있던 노동자가 일본인 감독에게 구타당하여 현장에서 혼절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감독은 의료비 10원을 주며 그 이상의 책임은 질 수 없다고 하여, 격분한 인부들은 그 돈을 거절하고 날이 샌 후 부상자를 신흥의원에 입원시켰다.[153] 장진강 개발 공사장 중 하나인 제6 斜坑에서는 사갱 내 3백 30척이나 되는 지하에서 작업하던 중 감독하던 일본인이 인부가 일을 잘하지 않는다고 두개골을 난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일도 있었다.[154] 이처럼 공사 현장에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일상적이었다. 게다가 청부업자가 담배를 외상으로 사려고 하였는데 이를 가게 주인이 거부하자 주인을 구타하여 중상을 입히기도 하고[155],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러 간 노동자에게 '돈이 없는데 무슨 잔소리냐'며 잉크병을 던져 상처를 입히는 등[156] 공사 현장이 아닌 곳에서도 청부업자들의 폭력이 자행되었다.

그러나 사이토 마코토(齊藤實) 총독은 "조선의 산업은 조선 통치의 기

149) 『동아일보』, 1935년 7월 22일, '勞賃低廉으로 生活難 勞動者離散多數'.
150) 佐藤時彦, 『土木人生五十年』, 中央公論事業出版, 1969, p.78.
151) 間組百年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p.382.
152) 藤本梅良 編, 앞의 책, p.5.
153) 『동아일보』, 1932년 8월 14일, '新興發電所에 殺傷이 頻發'.
154) 『동아일보』, 1933년 12월 26일, '水電工事場에서 人夫를 打殺'.
155) 『조선일보』, 1933년 10월, 3일, '賊反荷杖의 會社請負業者 담배 외상 안판다고 구타'.
156) 『조선일보』, 1928년 12월 25일, '朝鮮窒素會社의 頻煩한 勞動者虐待'.

초 및 인민 생활의 根底인 것은 물론이지만 일본 내지의 산업을 보충하며 또 그 발달에 영합하는 경제적 일체로서 산업정책의 완급 순서를 정한다"[157]라고 하며, 노동 시장, 노동 공급 등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총독부 내무국에서는 "1922년 현재 12세 미만의 유년자가 300여 명인데 이들은 가장 간단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보건상 위태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家貧과 학교 부족으로 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조선의 상태에서 금지나 제한할 필요는 없고 교육기관의 보급으로 점차 감소할 것이다.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현 조선의 산업상태상 제한하기는 곤란하다"라고 판단하였다.[158] 즉 노동자 사용에 있어서나 노동 시간에 대해서 법적인 금지나 제한이 따로 없으며, 작업 현장에서 임금이나 작업 조건은 자본가의 임의적 판단에 맡기거나 일본의 관행을 따르도록 하였다. 노구치는 조선 진출의 동기에 대해 "농림, 수산, 광업에 걸쳐 풍부한 원료자원이 있는 곳, 풍부하고 싼 노동력이 있는 곳, 기타 일본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제반 조건이 있음에 틀림없다"고 하였다.[159]

조선총독부는 각종 경제 관련 연구에서 조선인 노동자 임금의 저렴함에 대해 강조하면서,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이 일본인 노동자의 임금 보다 낮은 것은 주로 생계비 차이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즉 대체적으로 조선인 노동자의 생활이 극히 간소했다는 것이다. 조선인들은 보건・위생・교육 등에 관한 경비는 거의 지출하고 있지 않으며, 음식은 보통 조 및 小豆를 주식으로 하여 이외에 부식 등을 조금 첨가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의복은 최소한도로 하기 때문에 지출비용이 거의 없으며, 주거 또한 극히 간단하다는 것이다. 여름에는 대부분 집 밖에서 잠을 자며, 주요한 광산 및 공장 등에서는 그들을 위하여 함바(飯場, 長屋)를 제공하거나 십장(人夫頭)의 집에 같이 사는 관습이 있으므로 주택에 관한 비용도 거의 필요없다고 하였다. 반면 일본인의 경우 생활양식 및 기

157) 駕田直治, 「朝鮮産業政策研究要綱」, 『齊藤實文書』 6卷, 고려서림, 1927, p.485.
158) 朝鮮總督府內務局社會科, 『會社及工場に於ける勞動者の調査』, 1923, p.12.
159) 김웅기, 「일본질소에 의한 압록강 본류 전원개발과 조선총독부・만주국간의 공조」, 『근대 열강의 식민지 통치와 국민통합』, 2010, p.260.

타 여러 점에서 조선인에 비해 많은 생활비를 필요로 하므로 같은 종류의 노동에 종사하더라도 더 많은 임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160]

그러나 『실상조』를 살펴보면,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서호진 방파제 축조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일본인 목수(大工)의 경우, 일당이 3.5원이며 하루 생활비 합계는 2.02원으로 임금의 57%를 차지한다. 반면, 조선인 목수는 일당이 2.2원이며 하루 생활비 합계는 1.442원으로 임금의 65%를 차지한다. 즉 조선인 인부의 경우, 임금 중 생활비 비율이 높다. 평인부의 경우는 이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161] 다시 말해 조선총독부의 논리에 따르면, 조선인들의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거나 일본인들의 임금을 더 적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중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조선인과 임금을 비슷하게 받으면서 훨씬 낮은 생계비를 기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조선총독부의 논리에 따르면, 중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보다 낮아야 한다. 또한, 함바에서도 飯場頭라는 중간적 존재가 있어 식대 뿐만 아니라 관리비 명목으로 한 사람당 2전 내지 3전 정도를 거두는 곳도 있었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논리는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며,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었다. 즉 낮은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빈곤한 생활을 영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162]

한편 조선인 노동자들은 임금이 너무 낮은 나머지 최소한의 생계 조차도 보장 받지 못했다. 1933년 조선총독부가 남쪽의 과잉 인구를 북쪽 토목공사 현장으로 이동시켰을 당시, 임금 결정의 기초 작업으로서 북쪽 지방 노동자들의 생활비를 조사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하루 함바 생활비로서 쌀밥의 경우 35전, 미와 잡곡 반반의 경우 30전, 煙草 5전, 작업화 3전, 잡비 5전 등이 필요하였다.[163] 그리고 장진강 발전소 공사장 인부들

---

160) 山田文雄, 「朝鮮人勞動者問題」, 『朝鮮經濟の硏究』, 第2冊, 刀江書院, 1929, pp.28~36.

161) 朝鮮土木建築協會 編, 앞의 책, pp.225~236.

162) 김영근, 위의 논문, pp.78~85.

163) 1934년의 기사에는 "부전강 水原 공사의 임금도 큰 차이는 없으나, 밥값은 쌀밥이 45전, 조밥은 33전으로 좀 비싼편"이라고 하였다(『동아일보』, 1934년 4월 30일, '北朝鮮勞動者賃銀 一日平均八十錢').

의 평균 임금은 <표15>와 같았다.

<표 15> 장진강 발전소 공사장 인부들의 임금

단위 : 원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左官[164]	3.00	2.30	2.50	1.40	1.20	1.30			
平人夫	1.50	1.20	1.40	1.00	0.55	0.80	1.10	0.80	0.90
石工	3.00	2.50	2.80	1.70	1.50	1.60			

출전 : 鈴木正文 著,『朝鮮經濟の現段階』,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1938, p.305.

<표 15>는 아사히(朝日) 신문 경성 지국장이었던 스즈키 마사후미(鈴木正文)가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이 표에 따르면, 일본인의 경우 하루에 평균 1원 40전, 중국인의 경우 90전, 조선인의 경우 80전을 받았다. 조선인 노동자는 일본인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았으며, 중국인 노동자보다도 적은 임금을 받았다. 결국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조선총독부는 남쪽 지방의 노동자를 고용주에게 소개할 당시, 하한을 70전으로 정하였다.[165]

하지만, 70전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던 경우가 많았다. 平人夫의 경우 55전부터 60전, 40전까지 다양했고,[166] 심지어는 35전부터 40전 내외를 받는 노동자들도 있었다.[167] 앞서 조선총독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기본적인 생활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43전에서 48전인데 이것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았던 것이다. 게다가 소개료나 물품 구입비 등의 중간 이자까지 제외하고 나면, 70전을 받더라도 노동자들의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거의 없었다.

이마저 한달에 한번씩 월말에 임금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164) 미장이를 뜻한다.
165) 조선총독부 조사에 따르면, 1929년 당시 광부들의 임금이 평균 75전이었다(「昭和四年鑛夫賃金概算」,『調査月報』, 第1卷6号, 1930년, 9월, p.56.).
166)『동아일보』, 1934년 5월 17일, 앞의 기사,『동아일보』, 1932년 5월 10일, '朝鮮發電所人夫 三名一時死傷'.
167)『동아일보』, 1932년 4월 12일, '四十錢勞賃을 目標로 新興에 多數集中'.

임금 대신 받은 전표를 잡혀 싼값에 돈을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를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이 대부분 다른 일자리로 떠나 버렸다.[168] 이에 조선총독부는 인부의 임금을 50전에서 70전에 지나지 않던 것을 80전에서 90전으로 인상할 것이며, 머지 않아 1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각지에서 인부를 모집하기도 하였다.[169] 이처럼 조선총독부 스스로 임금이 "50전에서 70전" 정도 밖에 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별반 나아진 게 없었다. 여전히 보통 50전의 임금을 받았으며,[170] 심지어는 중국인 노동자의 경우 1원 30전을 받았는데 조선인은 60전 밖에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171]

부전강 및 장진강 발전소 공사장에는 현지인 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물가 및 생활비가 상승하였다. 게다가 발전소 건설은 사회 간접 자본 및 생산 자본을 구축하는 성질을 지녔기에, 생활 조건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기 마련이었다.[172] 그래서 신흥군의 영업조합에서는 음식물 가격을 2할 이상 인상하려 하였으며, 노동자들이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173] 그런데도 1928년에 작성한 『실상조』에 언급된 朝窒西湖防波堤工事場의 하루 임금 85전, 90전 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았다는 것은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너무나도 낮았다.[174]

그리고 임금 지불 또한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니시마츠구미(西松組)에서는 기술 노동자의 임금만 지불하고 그 외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무려 4개월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임금을 요구하는 노동자가 있으면 오히려 흉기를 가지고 위협하기도 하였다.[175] 함주군 하기천면 출장소에서는 임금 지급이 늦어진데 불만을 품은 인부 70여 명이 사무소를 습격하기도 하였다.[176] 약속한 월급보다 적게 지급한

168) 『동아일보』, 1934년 10월 10일, '冬期 앞둔 長津工事 人夫들 四方離散'.
169) 『동아일보』, 1933년 10월 16일, '低賃으로 勞動者不足 畢竟賃金을 引上'.
170) 『동아일보』, 1934년 11월 12일, 앞의 기사.
171) 『동아일보』, 1934년 1월 2일, '工事와 勞動問題, 生命 받치는 勞動에 六十錢'.
172) 『동아일보』, 1934년 1월 2일. 위의 기사.
173) 1932년 4월 12일. 앞의 기사.
174) 朝鮮土木建築協會 編, 앞의 책, pp.321-322.
175) 『조선일보』, 1928년 3월 10일, '牛馬가티 부리고 4個月 賃金 不給'.

일도 있어, 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킨 일도 있었다. 1934년 부산역을 출발하여 함남 장진으로 이주한 경상남도의 노동자 120여 명은, 모집할 때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준다는 이유로 청부업자와 대립하였다. 그들은 원래 나진으로 향하다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이곳으로 왔는데, "나진과 같이 최저 임금이 80전이라고 명언하였는데 실상 가서 보니 80전이 아니라 50전 이하로 인하하였기 때문"이라고 항의하였다. 이 사태는 조선총독부의 책임이 크다. 조선총독부는 장진 수전회사의 청부업자와 정식 계약을 하지 않고, 다만 나진과 동일한 정도로 최저 80전을 지불한다고 노동자에게 선언한 후 보냈던 것이다. 이후 노동자들이 계약문을 받아보니 임금이 최저 60전이라고 하므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177] 나중에 조선총독부 사회과원이 황급히 장진으로 가서 일정한 기간에 숙련되면 최저 73전을 주도록 하였지만, 경남 노동자들은 반 수 이상이 도주하였다.[178]

그리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현금이 아니라 전표로 지급받았다. 이들은 전표를 현금과 교환해 줄 날 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미리 전표를 할인하여 팔았고, 이를 이용해 청부업자들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였다.[179] 심지어는, 2개월 3개월 만에 현금과 바꾸어 주는 경우도 있었다.[180] 각 구미에서는 노동자들의 경제와 편의를 도와준다는 구실로 일용잡화를 판매하는 배급소를 두었는데 시가보다 2, 3할이 비쌌으며, 나무로 5전 혹은 10전에 해당하는 돈을 만들어[木錢] 지급하여 이 배급소에서만 거래하게끔 하기도 하였다.[181]

또한 장진강 공사장에서 전표의 할인율은 대체로 1할 혹은 2할이었다.[182] 장진강 제언 공사장에서 일했던 韓昇冕의 증언에 따르면, 전표는 구미와 배하가 따로 발행했다. 그래서 구미가 발행한 것은 1할을, 배하가

176) 『동아일보』, 1935년 9월 28일, '弘電社人夫七十名이 事務所를 大擧襲擊'.
177) 『동아일보』, 1934년 4월 22일, 앞의 기사.
178) 『동아일보』, 1934년 5월 1일, '長津간 慶南勞動者 勞賃 적어 太半逃還'.
179) 김영근, 앞의 논문, p. 73.
180) 『동아일보』, 1928년 12월 20일, '水害災民移住地인 東長津에 積雪五尺'.
181) 『조선일보』, 1928년 12월 25일, 앞의 기사.
182) 『동아일보』, 1932년 7월 15일, '勞賃不佛로 勞動者打擊'.

발행한 것은 2할을 할인하였다. 그것을 매수한 구미의 앞잡이들(手先)은 수수료를 또 받았다. 노동자들이 직접 구미(組)에게 가서 팔 수는 없었다. 노동자를 관리하는 배하나 하청이 구미(組)로부터 임금을 받고 나서 도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러면 노동자는 큰 손해를 입어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전표를 파는 것이 오히려 나았던 것이다.[183]

전표를 타러 갔다가 조선인 노동자가 살해당하는 사건도 일어났다.[184] 그리고 전표를 매입하여 위조하려다 발각되거나, 실제로 수천원대에 달하는 전표를 위조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185]

부전강・장진강 공사장 인부들 중 독신자의 경우 대부분 함바(飯場)에 거주하였다.『실상조』를 보면, 주거 형태를 '自家', '借家', '共住', '飯屋'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독신자는 대부분 飯屋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飯屋이 바로 함바이다.[186] 조선총독부에서는 "노자협조"의 명목하에 함바에서의 노동자 생활을 그냥 회사 측에 일임하였다. 그래서 가옥의 크기나 구조가 불완전한 것이 많았으며, 함바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영양이나 위생적인 측면에서 열악했다.[187] <표 16>은 장진강 개발 공사 사고 중 합숙소 관련 사고를 정리한 것이다.

---

183) 藤鳥宇內, 앞의 글, p. 19. 실제로 장진에 있던 공영사의 회계원이었던 사람이 전표 572원을 현금으로 바꾼 후 도망간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조선일보』, 1931년 3월 10일, '人夫賃三百餘圓 橫領逃走者嚴探').

184) 『동아일보』, 1932년 7월 4일, '傳票 타러간 人夫 江上의 屍體로'; 『동아일보』, 1932년 8월 14일 '新興發電所에 殺傷이 頻發'.

185) 『동아일보』, 1935년 6월 20일. '傳票僞造犯 三名을 送局'.

186) 朝鮮土木建築協會 編, 앞의 책, pp.32~424.

187) 『조선일보』, 1938년 5월 13일, '全朝鮮各工事場의 不潔한 밥집 大手術'.

<표 16> 장진강 개발 공사 사고 현황 ③

발생일시	장소	사상자수	사고원인 및 내용	출전
1934. 8.4	함주군 하기천면 진흥리	20여명	1일부터 3일까지 호우로 수전 공사 노동자 합숙소가 사태로 무너짐	『조선일보』 1934년 08월 04일
1934. 8.7	신남면 송정리 松本組 青木丁場	1명 사망	- 인부 숙사 20여호가 폭우로 침수	『동아일보』 1934년 08월 07일
1936. 9.9 오전 9시	함주군 하기천면 동흥리 제2 발전소	5명 사망 2명 중상	폭우로 중국인 노동자 합숙소의 뒷산이 무너짐	『조선일보』 1936년 09월 10일

<표 1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폭우로 노동자 합숙소가 무너진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가옥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188] 심지어 실제 부전강 발전소 건설에 종사했던 김하춘은, “함바는 10명 정도 밖에 잘 수 없는 작은 집에 50명을 밀어 넣었다. 그것을 위해 집의 한가운데에 끈을 걸어, 양측으로부터 발을 걸고 잤다.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가다가 잡히면, 죽을 때까지 심하게 치도곤을 당하기도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189] 장진강 제언 공사에 종사했던 韓昇冕은 “함바에는 항상 面長이나 村長의 아들을 隊長으로 임명하여 노동자들의 도망을 감시”하였다고 한다.[190]

부전강 및 장진강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는 조선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일본인・중국인 노동자들이 서로 뒤섞여 작업을 하였다. 일본인 노동자의 경우는 중간 관리자급이 많았으며, 대부분의 현장은 조선인과 중국인 노동자들이 작업에 종사하였다. 그러다 보니 조선인 노동자들과 중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함경남도 장진군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던 중국인의 가게에 두 사람의 조선인이 들어가서 음식을 청하였는데, 중국인 주인은 잘못 듣고 청하지 않은 다른 음식을 가져왔다. 이에 서로 말썽이 생겨, 주인집에 고용되어 있던 중국인이 먼저 조선인을 구타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어 그곳에 있던 중국인과 조선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다수의 부상자를 내기도 하였다.[191]

188) 『조선일보』, 1934년 8월 4일, ‘長津水電合宿所에 沙汰로 廿名 死傷’; 『동아일보』, 1934년 8월 7일, ‘橋梁이 崩壞로 少年이 溺死’.
189) 藤鳥宇內, 앞의 글, p.21.
190) 藤鳥宇內, 앞의 글, p.19.

또한 장진강 수전 공사장에서는 중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자주 발생하였다. 중국인 노동자 한 명이 자기 집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하자 뒷집에 있는 동료들을 고발하였고, 이에 다툼이 일어나 15명이 사망하였다.[192] 그리고 숙소 문제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 여러 명이 죽기도 하였다.[193]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인 청부업자나 배하들은 중국인들을 이용하여 조선인 노동자들을 통제하였다. 회사 측에 동조한 사람의 아들 결혼 잔치에서 싸움이 벌어지자 함흥 경찰서에서도 "응원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회사에서 일하던 중국인 노동자들이 곡괭이와 가래 등을 가지고 경찰의 비호 아래 군중을 해산[194]시키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또한, 함흥군 천원면 홍상리 일대의 수리조합 공사에서는 청부업자 오바야시구미(大林組) 배하 일본인이 중국인 노동자 40명을 선동하여 밤마다 곤봉과 권총을 들고 마을을 배회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위협하다가 결국 급기야는 주민을 권총으로 사살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195]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의 만연한 폭력과 감시 및 통제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작업을 거부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파업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노동자가 작업 도중 일본인 감독에게 구타를 당하여 쓰러지면, 즉각 작업을 중단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196] 그리고 임금 등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도망하였다. 이를 두고 청부업자들은 "조선인 노동자들은 정착률이 나쁘다"라며 조선인의 민족성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힘든 작업 현실에 노동자들이 적응하지 못한 원인도 있지만 알선한 조선총독부나 청부업자 측의 잘못도 크다.[197] 즉, 조선총독부가 노동자들을 알선할 때 회사나 청부업자

191) 『동아일보』, 1928년 8월 29일, '朝中人便戰 負傷者多數'.
192) 『동아일보』, 1934년 8월 3일, '中國勞動者 二名毆打致死'.
193) 『동아일보』, 1935년 5월 29일, '長津水電工事場서 中國人끼리 便戰 一名死亡數名重傷'.
194) 『동아일보』, 1927년 6월 16일, 앞의 기사.
195) 『동아일보』, 1929년 11월 21일, '拳銃, 爆藥等으로 威脅, 不安恐怖中의 住民'.
196) 『동아일보』, 1932년 8월 14일, '新興發電所에 殺傷이 頻發'.
197) 間組百年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p. 384.

측과 철저하게 임금 등에 대해 협상하지 않았거나, 청부업자들이 물가 현실을 무시한 채 임금을 지불하였기 때문이다.[198] 공사 현장의 노동자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톱니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을 견디고 있었지만 노동자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잃지 않았다. "객지에서 맺은 그들의 정은 실로 강렬"하였다.[199]

일본인 노동자들은 동조 파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1931년 5월 30일, 조선 질소 회사 연공장 기계 부설 공사를 청부받아 공사에 착수하고 있던 사노구미(佐野組) 소속 노동자 40여 명이 "임금 인하 반대, 조선인 일본인 차별 금지" 구호를 내걸고 파업에 들어가자, 일본인 사무원 20여 명이 동조 파업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결국 사노구미(佐野組)는 요구 조건을 수용하였지만 보름 뒤에 조선인 13명과 일본인 5명을 파업 지도자라는 이유로 해고하였고, 이에 항의하며 사무실로 몰려들자 경찰을 동원하여 해산시켰다.[200] 그리고 중국인 노동자들도 노동 조건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조선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중국인 노동자들도 급기야는 임금 미지불에 항의하며 파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201]

부전강 및 장진강 수전 공사에 종사한 노동자들은 한 공사가 끝나면 다른 공사장으로 일자리를 찾아 가야 하는 이동적 성격과 혹한이면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계절적 성격이 강하였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주로 매수된 토지의 소유자들이나 조선총독부가 알선한 남쪽의 농촌 노동자들을 고용하였기 때문에 이 곳 공사장에서는 십장제가 발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청부업자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파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202] 그리고 가솔린 운전사들은 "대우 개선, 임금 인상, 작업중 부상자에게 치료비 일체와 그 기간 동안의 일급 지급, 해고할 때는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할 것, 해고수당은 현 임금의 2개월 분을 지급할 것, 공급품 가격은

198) 『동아일보』, 1936년 5월 16일, 앞의 기사; 『조선일보』, 1937년 05월 21일, '長津水電에 移民간 人夫續續脫走'.
199) 『동아일보』, 1936년 6월 2일, '生死를 運命에 맡기고 晝夜不分의 勞動'.
200) 『동아일보』, 1931년 6월 4일, '朝窒從業員 四十餘名盟罷', 1931년 6월 7일, '朝窒罷業團 勝利 엇고 就業'; 1931년 6월 22일, '罷業指導者라고 十八名解雇'.
201) 『조선일보』, 1935년 2월 9일, '百餘의 中人苦力 同盟罷業을 斷行'.
202) 『조선일보』, 1928년 12월 25일, 앞의 기사.

배급소의 정가대로 할 것, 야간 작업 시 임금의 3할을 더할 것, 금후 임금은 구미(組)에서 직접 지급할 것"등을 내걸고 두 차례나 파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203]

일제하에서 전개된 다른 토목 공사처럼, 부전강 및 장진강 발전소 건설 역시 청부업자들이 공사를 맡아 진행하였다. 일본질소는 조선으로 진출하기 이전부터 같이 작업을 했던 마츠모토구미(松本組)・나가토구미(長門組)・니시마츠구미(西松組), 하자마구미(間組) 등에게 공사를 맡겼다. 노동자들은 이들 청부업자에 소속되어 공사에 종사했는데, 청부업자와 직접 관계를 맺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대부분이 배하, 친방 등으로 불리는 중간 감독자의 통제를 받았다. 실제 공사현장에서의 감독은 대부분이 일본인이었으며, 이들 일본인 감독은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감독하였다.

회사 및 청부업자들이 조선인 노동자들을 통제했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임금이었다. 임금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는 생계비라 결론짓고, 실제 장진강 공사 현장에서의 생계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나서 최저임금을 하루 70전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전강 공사 당시보다도 낮았다. 실제 당시 일본인의 임금과 생계비 비율을 따져보더라도 생계비 때문에 임금을 낮게 책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게다가 노동자들은 임금을 현금이 아니라 전표로 지급받았으며, 당장 현금이 급했던 노동자들은 이를 할인해서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이를 통해 회사나 청부업자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또한, 독신 노동자들은 함바에서 생활하였는데, 함바의 크기나 위생・영양 등이 매우 열악하였다.

부전강 및 장진강 공사 현장에서는 조선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일본인 및 중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작업을 진행하였다. 회사나 청부업자들은 중국인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조선인 노동자들을 통제하기도 하였지만, 중국인 노동자들은 임금 지불에 항의하며 파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인 노동자들도 조선인 노동자들의 파업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

203) 『조선일보』 1929년 7월 6일, 앞의 기사; 1935년 6월 10일, '長津水電工事 運轉手 등 罷業'.

5. 結 語

일본질소는 저렴한 유안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조선으로 진출하였다. 때마침 조선에서는 1919년 금강산전기철도가 유역변경식 수력 발전소 건설에 성공하여 전력 생산을 시작하고 있었다. 1920년대 중반 미쓰비시 합자회사와 일본질소가 각각 압록강 상류 하천의 유역변경에 의한 발전 계획을 출원하자 시모오카 정무총감은 미쓰비씨에 장진강 개발권을, 일본질소에 부전강 개발권을 허가하였다. 이는 노구치가 민정당 의원 시게마쓰를 통해 시모오카에게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로써 일본질소는 1926년 조선수전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부전강 발전소 건설을 시작하였다.

한편, 부전강 발전소 건설은 토지 매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주민과의 마찰이 적지 않았다. 게다가 매수한 토지의 소유주들에 대한 이전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고, 결국 이들은 개발 공사의 노동자로 종사하게 되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은 일본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당시 일본 내각은 '노자협조'를 강조하는 산업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자협조'는 조선에도 강조되었으며, 일본과는 달리 중요산업통제법・공장법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1931년 부임한 우가키 총독의 조선 공업화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우가키는 1932년 '조선전기사업령'을 공포하고 전력 통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어 장진강 개발권을 미쓰비시로부터 회수하여, 발전량의 1/2을 공공용으로 내놓는다는 조건 하에 일본질소에게 넘겼다. 일본질소는 1933년 장진강수전회사를 설립하고,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장진강 발전소를 건설하였다. 장진강 발전소 건설 역시 지주들의 반대로 난항에 부딪혔다. 이에 조선총독부에서는 토지 수용령을 적용하였으며, 일본질소는 헐값에 토지를 매수할 수 있었다. 결국, 1935년 4월 말 기준으로 부전강 발전소의 경우 1㎾당 건설비가 265엔, 장진강 발전소의 겨우 250엔으로 일본 5대 전력의 평균보다 훨씬 저렴하였다.

한편, 부전강 개발 공사는 매일 8,000~15,000명 정도의 노동자가 종사할 정도로 대규모 공사였다. 조선총독부는 도항 저지가 사회문제화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저지당한 노동자를 수전 공사장으로 보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사회과원을 부산에 파견하여 조선인 인부를 함경남도로 가도록 주선하는 등 조선총독부·경상남도·부산부 등 각 행정기구가 총동원되어 노동자를 모집하였다.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작업 환경 등의 이유로 다시 부산으로 향했으며, 이에 회사와 청부업자들은 임금이 저렴하며 조선인 노동자들보다 훨씬 조직적인 중국인 노동자들을 적극 고용하였다.

우가키 총독은 조선인 노동자의 취업 알선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하였다. 직업소개소의 강화, 언론의 동원 등을 통하여 노동자 모집에 주력하였다. 결국 1934년 2월 '남조선노동자단체이민안'을 제정하여, 20명을 단위로 하여 영주성을 높이려 노력하였다. 하지만 회사나 청부업자들과 제대로 계약이 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이 매우 열악하였으며, 귀환자가 속출하였다.

유역변경식으로 개발된 부전강 및 장진강 발전소는 토지 매수·자제 운반 철도 건설, 전기 시설 등 준비 공사와 수로 공사 등의 본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래서 본공사 당시, 준비한 전력이 모자라 공사의 차질을 빚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공사 기간도 유례가 없이 빨리 진행되다 보니, 노동자들은 매일 2교대로 공사에 종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았으며, 장진강 수전의 경우 '사고수전'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특히 수로나 竪坑·斜坑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다이너마이트 사고도 자주 발생하였다. 회사는 대부분 사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였으며, 사고자나 부상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였으나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부전강 및 장진강 개발에서도 여타 토목 공사와 마찬가지로 실제 공사는 청부업자가 담당하였다. 마츠모토구미(松本組)·나가토구미(長門組)·니시마츠구미(西松組)·하자마구미(間組) 등이 이 공사에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그 이전부터 노구치와 직간접적인 인연을 맺어왔다. 하지만 청부

업자와 노동자 사이에도 중간 감독이 있었으니 바로 配下, 親方이라 불리는 이들이었다. 청부업자와 배하는 끊임없이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통제하였으니, 노동자들은 조선총독부 - 회사 - 청부업자 - 배하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 속에서 감시와 통제를 받았다.

조선총독부는 생계비의 저렴함을 강조하며, 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렴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많았으며, 노동자들은 임금을 현금이 아닌 전표로 받았다.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했던 노동자들은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부 할인하여 교환하였다. 또한 독신 노동자들은 함바에 거주하면서 회사나 청부업자의 통제를 받았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통제에 저항하며 파업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일제하 조선에서 자본주의의 발달은 이처럼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공업의 기초가 되는 발전소 등의 대규모의 사회 간접자본 시설 건설에는 많은 수의 노동자가 동원되었으며,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희생도 컸다. 조선총독부는 도일 노동자 규제나 '단체이민안' 등을 통해 대규모의 노동력 동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조선총독부라는 통치 권력과 일본질소라는 민간 회사가 결탁하여 일제하 발전소 건설을 주도해 나갔다. 이러한 통치 권력의 비호 아래, 실제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청부업자의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졌다. 회사 및 청부업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근대적 자본주의 하의 대등한 관계와는 거리가 멀었다. 노동자들은 고된 작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회사 및 청부업자들의 폭력에 노출되었다. 특히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금을 통제하여 노동자들을 길들여 나갔다. 이와 같은 노동자들의 상황을 일본질소의 부전강 및 장진강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조선은 본격적으로 '전시체제기'에 들어섰다. 이후에 일본질소는 허천강・압록강 본류를 본격적으로 개발하였으며, 군수 공업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노동자 모집은 강제 동원의 성격으로 바뀌었으며, 노동력 통제도 총동원 체제하에 군대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검토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첨부> 부전강 및 장진강 개발 공사 사고 현황

1. 부전강

발생일시	장소	사상자수	사고원인 및 내용	출전
1927. 5.28 오전 1시	신흥군 西松組 관할 제12 竪坑	2명 사망 2명 사상	다이나마이트 폭발	『동아일보』 1927년 06월 03일
1927. 12.14 오후 3시	長門組 관할 제5 竪坑	12명 사망	- 다이나마이트 폭발 - 내지인3명,조선인3명,중국인6명	『경성일보』 1927년 12월 18일
1928. 1.6 오후 7시		중경상자 8인	뇌관이 폭발	『조선일보』 1928년 01월 10일
1929. 8.21 오후 2시	함남 송흥역 부근 회사 건설 사무소	1명 사망	잉크라인에 부딪힘	『조선일보』 1929년 08월 25일
1929. 11.15 오전 6시	송흥리 제1 발전소	1명 즉사 1명 부상	- 천정에서 큰돌이 떨어짐 - 공사 시작(1926)부터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며 상하기도 함	『동아일보』 1929년 11월 28일
1930. 10.4 오후 1시	신흥군 영고면 제2발전소	23명 중경상	잉크라인으로 노동자를 끌어올리던 중 기계가 파괴됨	『동아일보』 1930년 10월 06일
1932. 5.5 오전 7시	제4 발전소	1명 사망 2명 사상	- 발전소 지하실 웅덩이를 파는 흙을 끌어올리는 기계가 부러짐 - 기공한지 몇일 안되는 사이 희생자가 속출	『동아일보』 1932년 05월 10일

2. 장진강

발생일시	장소	사상자수	사고원인 및 내용	출전
1933. 10.15. 오후 4시	장진군 중남면 장항동 제1 斜坑	6세 소아 1명 사망	높이 있던 남포가 유리창을 깨트리고 들어와 방안에서 놀던 유아 사망	『동아일보』 1933년 10월 20일
1933. 1.11 오후 8시	함주군 하기천면 진흥리 수로 제9 斜口構內	2명 사망 6명 입원	- 인부 8명이 질주하는 “도로차”에 부딪힘 - 회사측과 지주측이 타협을 보지 않은 가운데 공사를 강행하다가 일어남	『동아일보』 1933년 01월 16일
1933. 11.30 오후11시	신흥리 발전소 부근	1명 즉사	인부들이 주거하고 있는 집에 돌연히 바위가 굴러들어 그 집이 무너짐	『동아일보』 1933년 12월 04일
1933. 12.1 오전 11시30분	함주군 하기천면 하대리 제1 발전소	2명 중상	다이너마이트에 뇌관을 설치하여 땅 위에 놓아둔 것이 폭발	『동아일보』 1933년 12월 04일
1933. 11.30 오후 5시	하기천면 동흥리 신흥철도 부설공사장	2명 중경상	암석이 폭발	『동아일보』 1933년 12월 04일
1933.	하기천면	1명 중상	벽이 무너짐	『조선일보』

12. 10 오전 9시	진흥리			1933년 12월 15일
1933. 12.10 오전 9시	장진군 신남면 수남동	1명 사망 1명 중상	벽이 무너짐	『조선일보』 1933년 12월 15일
1933. 12.10 오전 9시	함주군 하기천면 진흥리 間組 配下 柳學豊丁場	1명 사망	벽이 무너짐	『조선일보』 1933년 12월 15일
1933. 12.18 오후 8시 15분	함주군 하기천면 동흥리	1명 사망	위에서 밀구가 밀려 내림	『조선일보』 1933년 12월 22일
1934. 11.10 오전10시	함주군 하기천면 진흥리	1명 사망 1명 중상	밀구루마의 실수로 일하고 있는 공사장에 구름	『동아일보』 1934년 01월 26일
1934.2.4	황초령 間組 작업장	2명 즉사 4명 중상	기관수의 부주의로 돌을 잔득 싫은 상자가 떨어짐.	『동아일보』 1934년 02월 08일
1934. 2.10 오전 9시	중남면 장흥동 제1斜坑	1명 중상	斜坑이 무너짐	『동아일보』 1934년 02월 17일
1934. 2.12 오후 4시	중남면 장흥동 제2竪坑	1명 사망 1명 중상	竪坑이 무너짐	『동아일보』 1934년 02월 17일
1934. 2.25		1명 사망	수백 척 낭떠러지에 떨어짐	『동아일보』 1933년 03월 04일
1934. 2.28		1명 중상	밀차에 부딪힘	『동아일보』 1934년 03월 04일
1934. 3.9 오후 5시 30분	장진군 신남면 부성리 松本組 공사장	1명 즉사 3명 중상	- 갑자기 다이너마이트가 폭발 - 노동자 1명은 일본인	『동아일보』 1934년 03월 12일
1934. 3.11 오후 2시 20분	장진군 중남면 통지수리	2명 중상	토석이 무너짐	『동아일보』 1934년 03월 16일
1934. 3.15 오후 1시	신남면 도내리 芝口丁場	3명 중상	남포가 폭발	『동아일보』 1934년 04월 18일
1934. 4.15 오후 10시 반	장진군 신남면 고토리 間組 제6 斜坑 井迫工場	1명 즉사 5명 중상	다이너마이트가 폭발	『동아일보』 1934년 04월 24일
1934. 4.30 오후 6시 30분	함주군 하기천면 진흥리 동문현령 間組 공사장	1명 사망	다이나마이트가 폭발	『동아일보』 1934년 05월 03일
1934. 5.6		2명 중상	‘까솔린’차가 질주하다가 탈선됨	『동아일보』 1934년 05월 12일
1934. 5.12	장진군 중남면 하평리 제1	11명 중경상	- 坑穴이 무너짐 - 20시간이나 지하에 묻혀 있	『동아일보』 1934년

오후 6시	斜坑		었으나 전기와 수도 펌프 고장이 없어 물을 뽑아 내며 동시에 공기를 흡수시켜 밖에서는 흙을 파내어 13일 오후 3시 겨우 생명 구조. - 조선인 6명, 중국인 4명, 일본인 1명	05월 16일
1934. 5.18 오전 10시40분	장진군 신남면 하갈우리 松本組 공사장 前原丁場	1명 즉사	모래와 돌을 운반하는 쌍차에 부딪힘	『동아일보』 1934년 05월 22일
1934. 5.14 오후 1시	장진군 신남면 상평리 제4 斜坑 舟見丁場	3명 즉사 2명 위독	남포가 폭발	『동아일보』 1934년 06월 19일
1934. 6.26 오후12시	西松組 配下 제2 竪坑	4명 사망 2명 중상	천정벽이 무너짐	『동아일보』 1934년 06월 28일
1934. 6.26 오후12시	신남면 하갈리 松本組 제2 竪坑	6명 사상	南行窟이 전부 붕괴됨	『동아일보』 1934년 07월 01일
1934. 6.27 오전 2시	松本組 配下 水道 공장	4명 즉사 3명 중상	- 굴속에서 암석이 무너짐 - 조선인 2명, 중국인 2명 사망	『조선일보』 1934년 07월 03일
1934. 6.27 오전 9시	장진군 상남면 갈전리	1명 사망	목재를 달아올리던 기둥이 부러지면서, 공중에 있던 목재에 맞음	『동아일보』 1934년 07월 06일
1934. 6.25 오후 2시	장진군 신남면 하갈우리 前原丁場	유아 3명 중상	아이들이 남포를 가지고 놀다가 남포가 폭발	『동아일보』 1934년 07월 30일
1934. 7.27 오후10시	신남면 송정리 제4 竪坑	1명 중상	瓦斯가 폭발	『동아일보』 1934년 08월 02일
1934. 8.4	함주군 하기천면 진흥리	20여명 사상자	1일부터 3일까지 호우로 수전공사 노동자 합숙소가 사태로 무너짐	『조선일보』 1934년 08월 04일
1934. 8.7	신남면 송정리 松本組 靑木丁場	1명 사망	- 인부 숙사 20여호가 폭우로 침수 - 다리를 건너가다가 다리가 붕괴	『동아일보』 1934년 08월 07일
1934. 8.9 오후 6시 30분	제2 竪坑 松本伴五郞 작업장	1명 사망	승강기에 올라타다 실수함	『동아일보』 1934년 08월 13일
1934. 8.4 오전 6시 30분	신남면 도내리	1명 부상	천정에서 암석이 떨어짐	『동아일보』 1934년 08월 13일
1934. 8.15 오전 7시	신남면 도내리	1명 사망	- 승강기에 올라 타는 중 떨어짐 - 기공 이래 매일같이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빈발	『조선일보』 1934년 08월 24일
1934. 8.19 오후 3시	신남면 송원공장	1명 중상	- 암석 운반중 암석이 떨어짐 - 중국인	『조선일보』 1934년 08월 24일
1934.	장진군	2명 사망	남포 폭발	『동아일보』

8.27 오후 1시	신남면 부성리 제4 갱내			1934년 09월 01일
1934. 8.27 오후 1시	장진군 신남면 부성리 제4 갱내	2명 즉사	- 다이너마이트 폭발 - 일본인 1명, 중국인 1명	『조선일보』 1934년 09월 05일
1934. 10.20 오전 8시	함주군 하기천면 진흥리	2명 즉사 1명 중상	- 아이들이 미폭발의 다이너마이트를 굴리면서 놀다가 화를 입음 - 반년에 30여 건의 인명사고 발생	『조선일보』 1934년 10월 25일
1934. 10.28 오전 8시	신남면 고토리 제7 斜坑	2명 중상	- 다이너마이트가 폭발 -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이 8명, 중경상자가 38명임	『동아일보』 1934년 11월 09일
1934. 11.2	장진군 신남면 재원리 제8 斜坑	4명 중상	- 남포 폭발 - 19회의 사고. 7명의 사망자와 34명의 부상자	『동아일보』 1934년 11월 12일
1934. 11.19 오후 7시	신남면 송정리 靑木丁場	1명 사망	밀구루마를 밀고 가다가 竪坑에 빠짐	『동아일보』 1934년 11월 23일
1934. 11.21 오전 8시 15분	장진군 신남면 고토리 제7 斜坑	2명 중상	- 다이너마이트가 폭발 - 사고발생 21회, 사망자 8명, 부상자 38명	『조선일보』 1934년 11월 29일
1934. 11.25 오전 9시	신남면 하갈우리 前原丁場 제2 斜坑	1명 사망	- 암석이 무너짐 - 사고발생이 22회, 사망이 15명, 부상이19명	『동아일보』 1934년 11월 30일
1934. 11.29 오전 7시	신남면 재원리 제8 斜坑 松久丁場	1명 사망	- 교대 시간에 “도로꼬”에 앉어 굴속에서 나오다가 돌맹이에 머리가 부딪힘 - 여기서 인명 사상이 50여명에 이름	『동아일보』 1934년 12월 07일
1934. 11.10 오후 1시 30분	장진군 신남면 송정리 제4 竪坑	1명 사망	- 게지를 타고 굴밖으로 나오다가 천정에 부딪힘 - 동공사장서 희생된 사람만도 20여명임	『동아일보』 1934년 12월 18일
1934. 11.20 오전 8시 30분	신남면 도내리 제3 竪坑	1명 사망	- 게지를 타고 굴속으로 들어가던 인부가 게지에서 뛰어내리다가 게지에 깔림 - 동공사장에서 사고 발생건수가 20여회	『동아일보』 1934년 12월 28일
1935. 1.10 오전 11시30분	함주군 하기천면 진흥리 제9 斜坑	1명 중상	- 다이너마이트 폭발 - 식료품 잡화상임	『동아일보』 1935년 01월 23일
1935. 1.18	신남면 하갈우리 제2 竪坑	1명 사망	- 작업을 하다가 흙이 떨어짐 - 동공사장에서 사고 발생 27회, 사망 21명, 중경상 20명	『동아일보』 1935년 01월 25일
1935. 2.1 오후 4시	지남면 하갈시 前原丁場	1명 중상	남포약 폭발	『동아일보』 1935년 02월 06일
1935. 2.2 오후 4시	중남면 장흥리 西松組 제1 竪坑 坂本丁場	다수 중경상	남포약 폭발	『동아일보』 1935년 02월 06일
1935. 3.3	장진군 중남면 사수리	3명 즉사	원인 불명	『동아일보』 1935년

오전11시	西松組 제1 공사장			03월 10일
1935. 3.3 오후10시	장진군 신남면 송정리 제4 竪坑	4명 사망	- 정지하지 않은 게지에서 내리다가 상반신이 게지에 끼임 - 사고발생 30회, 사망자가 이미 25명, 부상자가 21명	『동아일보』 1935년 03월 11일
1935. 3.2 오후10시	장진군 신남면 재원리 제5 竪坑	1명 사망	- 다이너마이트에 폭발된 석괴파편이 인부의 후면배후에 명중함 - 사고발생 26회, 사망자 9명, 중경상자45명	『동아일보』 1935년 03월 13일
1935. 3.5 오후10시	제4 竪坑	1명 중상	- 게지를 타고 가다가 잘못 뛰어내려, 게지에 가슴이 눌림 - 취업 준비 중 발생 - 사고발생 누계 30회, 사망자 27명, 부상자 21명	『조선일보』 1935년 03월 13일
1935. 3.20	제2 竪坑	1명 즉사 3명 중상	다이너마이트 폭발	『조선일보』 1935년 03월 22일
1935. 3.27 오후 8시	장진군 신남면 장흥리 제1 竪坑	1명 즉사	게지에 부딪힘	『동아일보』 1935년 04월 03일
1935. 3.26 오전 2시	장진군 신남면 하평리 取入口 斜坑	1명 사망 4명 중상	석괴에 맞음	『동아일보』 1935년 04월 03일
1935. 3.27 오전 3시	장진군 신남면 부성리 松本組 제4 斜坑	1명 사망 2명 중상	다이너마이트 폭발	『동아일보』 1935년 04월 03일
1935. 3.28 오전 2시	장진군 중남면 하평리 取入 斜坑	1명 사망 4명 중상	트럭이 끌려 올라가다가 트럭이 떨어짐	『조선일보』 1935년 04월 03일
1935. 3.29 오전 8시	중남면 장흥리 제2 竪坑 西松組 松本丁場	1명 사망	- 게지에 머리가 부딪힘 - 게지 신호수로 종사함	「조선일보」 1935년 04월 03일
1935. 3.29 오후 3시 40분	신남면 부성리 제4 斜坑 松本組 田中丁場	2명 즉사 1명 중상	최초에 6개의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키고, 차후 20개의 다이너마이트에 점화했으나 미처 피난하기 전에 폭발함	『조선일보』 1935년 04월 03일
1935. 4.17 오후 9시	장진군 신남면 도내리 제3호 竪坑	2명 부상	게지에 부딪힘	『동아일보』 1935년 04월 26일
1935. 3.21 오후 9시	장진군 신남면 도내리 제3 竪坑	2명 중상	- 타고 있던 게지가 갑자기 갱밑으로 떨어짐 - 일본인 1명, 중국인 1명, 사고 37회, 70여명의 노동자 사상	『조선일보』 1935년 04월 26일
1935. 5.26 오후 2시	제2 竪坑	2명 중상	다이너마이트가 폭발	『조선일보』 1935년 05월 01일
1935. 5.1 오후 4시	제2 斜坑	1명 부상	기계에 부딪혀 오른손이 절단됨	『조선일보』 1935년 05월 07일
1935. 5.1	갈전리 堤堰 공사장	1명 부상	여자 노동자 1명이 머리를 다침	『조선일보』 1935년

오후 2시				05월 07일
1935. 5.5 오전 8시	取入口 斜坑	1명 즉사	천장이 무너짐	「조선일보」 1935년 05월 08일
1935. 5.6 오전 8시	장진군 신남면 하갈시 前原丁場	1명 즉사	南穴 천장이 작업중에 붕괴됨	『동아일보』 1935년 05월 09일
1935. 5.5 오전 6시	장진군 중남면 하평리 取入口	1명 사망	- 천정이 무너짐 - 16세의 소년이 인부가 되고자 찾아간 후 현장을 구경하다가 발생 - 사고발생 37회, 사망자 30명, 부상자 28명	『동아일보』 1935년 05월 10일
1935. 5.1	갈전리 堤堰 공사장	1명 중상	1년 이래 희생자가 거의 수백명을 헤아림	『조선일보』 1935년 05월 10일
1935. 5.1	수로 제3 竪坑	사망 3명 중상 3명		『조선일보』 1935년 05월 10일
1935. 5.2	제2 斜坑	1명 중상	기계공	『조선일보』 1935년 05월 10일
1935. 5.3	갈전리 堤堰 공사장	1명 중상	棧橋 낙하	『조선일보』 1935년 05월 10일
1935. 5.3	取入 斜坑	1명 즉사	원인 불명	『조선일보』 1935년 05월 10일
1935. 5.6	제2 斜坑	1명 즉사	원인 불명	『조선일보』 1935년 05월 10일
1935. 6.7	제2 斜坑	1명 중상	원인 불명	『조선일보』 1935년 05월 10일
1935. 5.6 오전10시	장진군 신남면 하갈우리 제2 斜坑 松本組 配下 前原丁場	1명 사망	천장에서 암석이 낙하함	『조선일보』 1935년 05월 11일
1935. 5.18 오후12시	장진군 신남면 하갈시 前原丁場	1명 부상	게지를 타고 나오다가 천정에 부딪침	『동아일보』 1935년 05월 21일
1935. 6.11 오후 4시 30분	장진군 신남면 하갈우리	1명 부상	- 공사장에서 버린 뇌관을 발견하여 가지고 놀다가 폭발함 - 10세 아동	『동아일보』 1935년 06월 16일
1935. 6.28 오후 4시 30분	장진군 상남면 갈전리	1명 부상	- 지상 약 10여척 되는 곳에서 추락함 - 사고발생 누계 41회, 사망 30명, 부상 29명	『동아일보』 1935년 07월 05일
1935. 7.5 오전 6시 46분	상남면 갈전리	1명 부상	- 가소린 차에 부딪침 - 공사장에 처음 일자리를 구하고자 찾아 온 16세 소년	『동아일보』 1935년 07월 12일

1935. 7.6 오전 6시 40분	상남면 갈전리	1명 사망	- 21척 높이에서 실족하여 떨어짐 - 사고 발생 43회, 사망 34명, 중경상 30명	『동아일보』 1935년 07월 12일
1935. 7.8 오후 9시	장진군 상남면 갈전리	1명 사망	- 게지에 부딪힘 - 연 3일간 3명 사망, 사망자가 35명, 중경상 30명	『동아일보』 1935년 07월 14일
1935. 8.16 오후10시	신남면 송정리 靑木丁場	1명 사망 2명 중상	게지에 치여	『동아일보』 1935년 08월 20일
1935. 9.20 오전10시	함주군 하기천면 진흥리 중령 공사장 橫坑	3명 중상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함	『동아일보』 1935년 09월 27일
1936.5.6. 오후 9시 반	함주군 하기천면 진흥리 사동 제2호 墜道	1명 사망 2명 중상	불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함	『조선일보』 1936년 05월 09일
			사고가 1천여 회	『동아일보』 1936년 06월 02일
1936.6.5. 오후 10시 반	함주군 하기천면 동흥리 제3 발전소	4명 중상	높이 28척 되는 허공에서 돌연 바람에 날아감	『동아일보』 1936년 06월 08일
1936.6.5. 오후 10시 반	함주군 하기천면 동흥리	1명 즉사 3명 중상	공사장에서 추락함	『조선일보』 1936년 06월 08일
1936. 6.15 정오	함주군 하기천면 동흥리 제2 발전소 제2 橫坑	7명 중상	입구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함	『동아일보』 1936년 06월 29일
1936. 6.25	함주군 하기천면 동흥리 제2 발전소 제2 橫坑	7명 중경상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함	『조선일보』 1936년 06월 30일
1936. 6.26 오후 1시	하기천면 진흥리 제4 터널 입구 제2 발전소	1명 즉사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던 찰나에 파편이 흉부를 때림	『동아일보』 1936년 07월 02일
1936. 7.21 오후 5시	길주군 영북면 봉(?)암동 허촌	3명 중경상	전선 가설 공사 작업 중 우연히 전선이 끊어짐	『조선일보』 1936년 07월 26일
1936. 9.9 오전 9시 반	함주군 하기천면 동흥리 제2 발전소	5명 사망 2명 중상	폭우로 중국인 노동자 합숙소의 뒷산이 무너짐	『조선일보』 1936년 09월 10일
1936. 10.24 오후 9시	제1 발전소	1명 사망 3명 중상	송전선에 벼락이 떨어져, 발전을 정지하기 위해 물을 정지시켰는데, 낙수가 철관에 역류하여 일부가 파괴되고 상부의 물통이 넘어섬	『조선일보』 1936년 10월 26일
1937. 6.27 오후 7시 40분	함주군 하기천면 동흥리 제2 발전소	1명 즉사 11명 중경상	인클라인이 전복됨	『동아일보』 1937년 06월 29일
1937.	함주군	1명 즉사	천정이 떨어짐	『동아일보』

6.23 오전 6시 30분	하기천면 제4 발전소	2명 중상		1937년 07월 26일
1937. 6.23 오후 2시	함주군 하기천면 송흥리 제4 발전소	1명 사망	천정에서 석벽이 떨어짐	『동아일보』 1937년 08월 27일
1937. 9.9 오후 4시 반	함주군 하기천면 상통리	1명 즉사 1명 중상	- 돈네루 어귀에서 천정이 떨어짐 - 사망 1명은 중국인	『동아일보』 1937년 09월 12일
1937. 10.4 오전 5시	함주군 하기천면 상도리 제4 발전소 松本組 田中丁場	2명 즉사 1명 중상	발파 작업 중 안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가 미리 나오지 못함	『조선일보』 1937년 10월 11일
1937. 10.21 오전 10시 반	함주군 상기천면 경흥리 제3 발전소	1명 사망	동발(足場)을 매는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딤	『조선일보』 1937년 10월 25일
1937. 10.25 오후 8시	함주군 하기천면 상통리 제3수로 松本組 船見丁場	1명 즉사 2명 중상	발파 작업을 하던중 갱내에서 미처 피하지 못한 노동자가 파석에 맞음	『조선일보』 1937년 10월 28일

參 考 文 獻

【資料】

1. 新聞

『東亞日報』,『朝鮮日報』,『京城日報』,『每日新報』,『東洋經濟新報』

2. 雜志 및 其他 刊行物

『北鮮開拓』

三宅晴輝,『新興コンツェルン讀本』(日本コンツェルン全書), 春秋社, 1927.
朝鮮鐵道協會,『朝鮮鐵道協會會誌』, Vol.7 No.3, 1928.
朝鮮土木建築協會 編,『朝鮮工事用各種勞動者實狀調』, 京城: 朝鮮土木建築協會, 1928.
船田享二 編,『朝鮮經濟の硏究』, 第2冊, 刀江書院, 1929.
藤本敏良 編,『(赴戰嶺水電工事)新興の咸南』, 新興の咸南社, 1929.
朝鮮鐵道協會 編,『朝鮮に於ける勞動者數及其分布狀態』, 朝鮮鐵道協會, 1929.
杉本英一,『土木建築並商工業關係法規通解』, 帝都興信所, 1930.
南滿洲鐵道株式會社,『朝鮮人勞動者一般事情』, 1933.
鎌田澤一郎,『宇垣一成』, 中央公論社, 1937.
松下伝吉,『化學工業財閥の新硏究』, 中外産業調査會, 1937.
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 編,『日本窒素肥料事業大觀』, 1937.
片桐龍吉,『半島の事業王 野口遵』, 東海出版社, 1939.

3. 朝鮮總督府 간행물 및 기타
『朝鮮』,『朝鮮彙報』,『朝鮮事會事業』

朝鮮總督府內務局社會科,『會社及工場に於ける勞動者の調査』, 1923.
朝鮮總督府遞信局,『朝鮮水力調査(總論)』, 1930.
朝鮮總督府 編,『調査月報』, 1930.
朝鮮總督府 編,『施政二十五年史』, 1935.

『齊藤實文書』6卷, 高麗書林, 1990.

【硏究論著】

1.【단행본】
姜萬吉,『日帝時代 貧民生活史 硏究』, 1987.
姜在彦 編,『朝鮮における日窒コンツェルン』, 不二出版株式會社, 1985.
高承濟,『韓國 社會經濟史論』, 一志社, 1988.
김태웅,『이주 노동자,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나 : 일제 강점기 중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아카넷, 2016.
박경식 저, 박경옥 역,『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 고즈윈, 2008
방기중 편,『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혜안, 2004.
이상의,『일제하 조선의 노동정책 연구』, 혜안, 2006.
車基璧 編,『日帝의 韓國 植民統治』, 1985.
호리 가즈오(堀和生), 주익종 역, 『한국 근대의 공업화, 일본 자본주의와의 관계』, 전통과 현대, 2003.
化學大辭典編集委員會 編, 성용길 등 역,『화학대사전』, 世和, 2001.

福本那雄 編,『野口遵は生きている-事業スピリットとその展開』, 1964.
佐藤時彦,『土木人生五十年』, 中央公論事業出版, 1969.

西松建設株式會社 編,『西松建設創業百年史』, 1978.
朝鮮電氣事業史編纂委員會,『朝鮮電氣事業史』, 中央日韓協會, 1981.
間組百年史編纂委員會,『間組百年 1899-1945』, (株)間組, 1989.
大塩武,『日窒コンツェルンの研究』, 日本経濟評論社, 1989.
土木工業協會, 電力建設業協會 編,『日本土木建設業史』, 技報堂, 1971.

2.【論文】

가타바 미치코(北波道子),「식민지 전원개발과 전력수요 - 조선과 대만의 비교 연구 -」,『일본자본주의와 한국, 대만』, 전통과 현대, 2007.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 주익종 역,「1930년대 조선 '공업화' 정책의 전개과정」,『한국근대경제사연구』, 사계절, 1983.
곽건홍,「1930년대 초반 조선질소비료공장 노동자조직운동」,『역사연구』 4, 1995.
金景林,「1930년대 植民地 朝鮮의 電氣事業」,『韓國史學會』, 1990.
_____,「식민지 시기 독점적 전기사업 체제의 형성」,『梨大史苑』 32, 1999.
_____,「식민지시기 조선의 독점적 전기 수급구조와 공업구조의 기형화」,『梨花史學硏究』28, 2001.
김미현,「1930~1936년 일제의 노동통제정책」,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金銀英,「1920년대 조선인 노동자의 구직 渡日과 부산시민대회」,『歷史敎育』136, 2015.
김영근,「1920년대 노동자의 존재형태에 관한 연구 - 토목・건축 노동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김웅기,「일본질소에 의한 압록강 본류 전원개발과 조선총독부・만주국 간의 공조」,『근대 열강의 식민지 통치와 국민통합』, 2010.
노태정,「1920년대 재조선 중국인 노동자의 실상」,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도리우미 유타카(小林拓矢),「일제하 일본인 請負業者의 활동과 이윤창출」,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孫禎睦,「日帝下 化學工業都市 興南에 관한 硏究 上・下」,『한국학보』59・60, 일지사, 1990.
安秉直, 「日本窒素における朝鮮人勞働者階級の成長に關する硏究」, 『朝鮮史硏究會論文集』25, 1988.
安裕林,「1930年代 總督 宇垣一成의 植民政策 : 北鮮收奪政策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양지혜,「'식민자 사회'의 형성 - 식민지기 하층 출신 일본인 이주자의 도시 경험과 자기규제」,『도시연구』7, 2012.
오선실,「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전력시스템 전환 : 기업용 대형 수력발전소의 등장과 전력망 체계의 구축」,『한국과학사학회지』30-1, 2008.
_____,「1910~1920년대 전력산업정책과 전력업계의 동향」,『한국근현대사연구』63, 2012.
오진석,「1923~1930년대 초 전력통제정책의 수립과정」,『사학연구』108, 2012.
이상의,「일제하 전시체제기의 임금통제와 조선인노동자」,『한국민족운동사연구』57, 2008.
이승렬,「1930년대 전반기 일본군부의 대륙침략관과 '조선공업화' 정책」,『國史館論叢』67, 1996.
이정용,「군부대신현역무관제와 우가키 가즈시게」,『日本硏究』12, 2004

藤鳥宇內,「朝鮮における企業犯罪」,『朝日ジャーナル』, 1972년 8월 18일.
山下岩夫 구술, 田中重好 정리,「朝鮮窒素での勤務體驗を聞く」,『自主講座』23, 1973.
松岡信夫,「朝鮮窒素肥料會社の体質と行動」,『自主講座』17, 1972.
_____,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硏究序說」, 『日本帝國主義と東アジア』, アジア經濟硏究所, 1979.

小林英夫, 「1930年代日本窒素株式會社の朝鮮への進出について」, 『植民地經濟史の諸問題』, 1973.

_____, 「朝鮮總督府の勞動力政策について」, 『經濟と經濟學』 34, 東京大, 1974.

糟谷憲一, 「戰時經濟と朝鮮における日窒財閥の展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2, 1975.

藤井光男, 「新興財閥日本窒素肥料の海外進出」, 『日本多國籍企業の史的展開』, 大月書店, 1979.

由佐秀雄, 「日窒の朝鮮における事業展開と間組」, 『日本窒素史への證言』, 續劵第四集, 1989.

日本公營株式會社, 「赴戰江發電工事の記錄」, 『日本窒素史への證言』 續劵第七集, 1990.

Abstract

Development and laborer control of Japan Nitrogenous Fertilizer Company in Bujeon river and Jangjin river uner Japanese imperialism

Park Sang Fil
History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Social Education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Japan Nitrogenous Fertilizer Company was established in 1908 by a merger between Sogi Electric Company and Nippon Carbide Industries Co. Inc. Japan Nitrogenous Fertilizer Company needed much electric power for mass production of inexpensive chemical fertilizers. However, since the electric power zone in Japan was already occupied by five major electric power companies, Japan Nitrogenous Fertilizer Company paid attention to Korea (Joseon) under Japanese rule. Just at that time, an inter-basin transfer type power plant was successfully constructed, and a survey on the hydroelectric power began. Japan Nitrogenous Fertilizer Company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constructing an inter-basin transfer type power plant at the Bujeon river, and requested the development right to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granted the development right for the Jangjin river to Mitsubishi, which had

already requested business right, and the development right for the Bujeon river to Japan Nitrogenous Fertilizer Company.

Japan Nitrogenous Fertilizer Company had to reduce the cost of constructing the power plant to produce cheap fertilizers. Hence, Japan Nitrogenous Fertilizer Company forced the local residents to sell their land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Bujeon River Power Plant by utilizing the authority of the military and the police. The cost of construction per 1 kW of the Bujeon River Power Plant, built on the land obtained through the coercion, was very low in comparison with Japan. Kazushige Ugaki, who came to the post of the Governor General of Korea in 1931, announced the Joseon Electric Business Act and started to control electric power. Subsequently, Ugaki received back the development right for the Jangjin river from Mitsubishi, and gave it to Japan Nitrogenous Fertilizer Company under the condition that half of the produced electric power should be provided for public purpose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pplied the Land Expropriation Act to the landlords who continuously opposed the land purchase, and Japan Nitrogenous Fertilizer Company bought the expropriated land at a giveaway price. As a result, the cost of construction per 1 kW of the Jangjin river also became very low.

Laborers from 8,000 to 15,000 worked each day for the Bujeon river development project. However, employing the laborers was not an easy task in Korea where industries were not developed yet. Therefor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stopped in Busan the laborers who wanted migration to Japan, which was a social issue at that time, and sent them to the power plant construction sites. Since not many people accepted the suggestion,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provided benefits, such as provision of travel expenses, and advertized the arrangement by utilizing mass media. However, the contractors in charge of the construction work preferred Chinese laborers due to the low wage and organization issues, and actually employed a considerable number of Chinese laborers. After Ugaki came into the post of the Governor General, the job placement

plan for Korean laborers was enforced more strongly than befor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positively engaged in the job placement for Korean laborers by using all available resources, including employment agencies, administrative power, and mass media organizations. Eventually in February 1934,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recruited laborers by preparing the South Korea Laborer Group Migration Plan. The purpose of the Plan was to transfer laborers as a group of 20 laborers to enhance the settlement by preventing escape of the laborers and strengthening the unity among them. In addition, various benefits were given to the laborers according to the Plan, including wage, dormitory, and travel expenses. However, a number of laborers returned home due to the poor working conditions and low wage. This was becaus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had not made appropriate agreements with the Company and the contractors with regard to the working conditions and wage.

The construction of the inter-basin transfer type power plants at the Bujeon river and the Jangjin river was a very difficult project. Accidents occurred unceasingly because of poor safety facilities. Many accidents occurred especially in inclined adits and vertical adit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of the construction of an inter-basin transfer type power plant is the construction of watercourses. The total length of the watercourses in the power plants at the Bujeon river and the Jangjin river was 23 to 27 km. Therefore, the watercourse construction was allocated to contractors, including Matsumoto Gumi, Nagato Gumi, Nishimoto Gumi, and Hazama Gumi. The contractors excavated aidts through which laborers or materials could pass to reach the watercourse construction sites, including horizontal adits, inclined adits, and vertical adits. The reason why many accidents occurred in the inclined adits and vertical adits was because laborers had to move through narrow adits that were 37 to 162 m long. In addition, many dynamite-related accidents continually occurred because a lot of dynamite was used for the excavation works for watercourses, inclined adits, vertical

adits, and horizontal adits. The Company and the contractors attributed most of the accidents to the laborers. However, most of the accidents occurred due to the carelessness of the Company or the poor conditions of safety facilities rather than the mistakes of the laborers. A relief measure was prepared for the accidents, but applied to almost no accident cases.

The Company and the contractors appointed middle managers for the surveillance and management of the thousands of laborers working at the Bujeon river and the Jangjin river power plant construction sites each day. The middle managers thoroughly supervised the laborers at the construction sites, even beating some laborers to death. In addition, to lower the wage for the laborer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emphasized that the living cost of the laborers was low. The lower limit of the wage for the recruited laborers was determined by investigating the living cost of the laborers at the construction sites. However, even the lower limit of the wage was often unobserved. Even the minimum living cost of the laborers was not guaranteed. Moreover, the laborers were given the wage not in cash but in slips, and the laborers who were in an urgent need of cash had to exchange the slips with cash at a discounted exchange rate. Most of unmarried laborers stayed in worksite canteens that were extremely poor with respect to space and hygiene.

Most of the laborers at the power plant construction sites worked with pride and made positive efforts to fulfill their mission even under the poor working conditions. They sometimes employed passive methods of protest against unjust working conditions or wage, including fleeing, complaint, and submission of a written petition, or positive methods, such as strike. Although Korean laborers and Chinese laborers sometimes stood against each other, they were sometimes united for a joint strike. As these examples show, the laborers at the power plant construction sites resisted in various ways the supervision and control by the Company and the contractors.

Key words: Japan Nitrogenous Fertilizer Company, Bujeon river, Jangjin river, inter-basin transfer type power plant, laborer mobilization, laborer control

Student ID Number: 2012-21391